

3 2024 VOL.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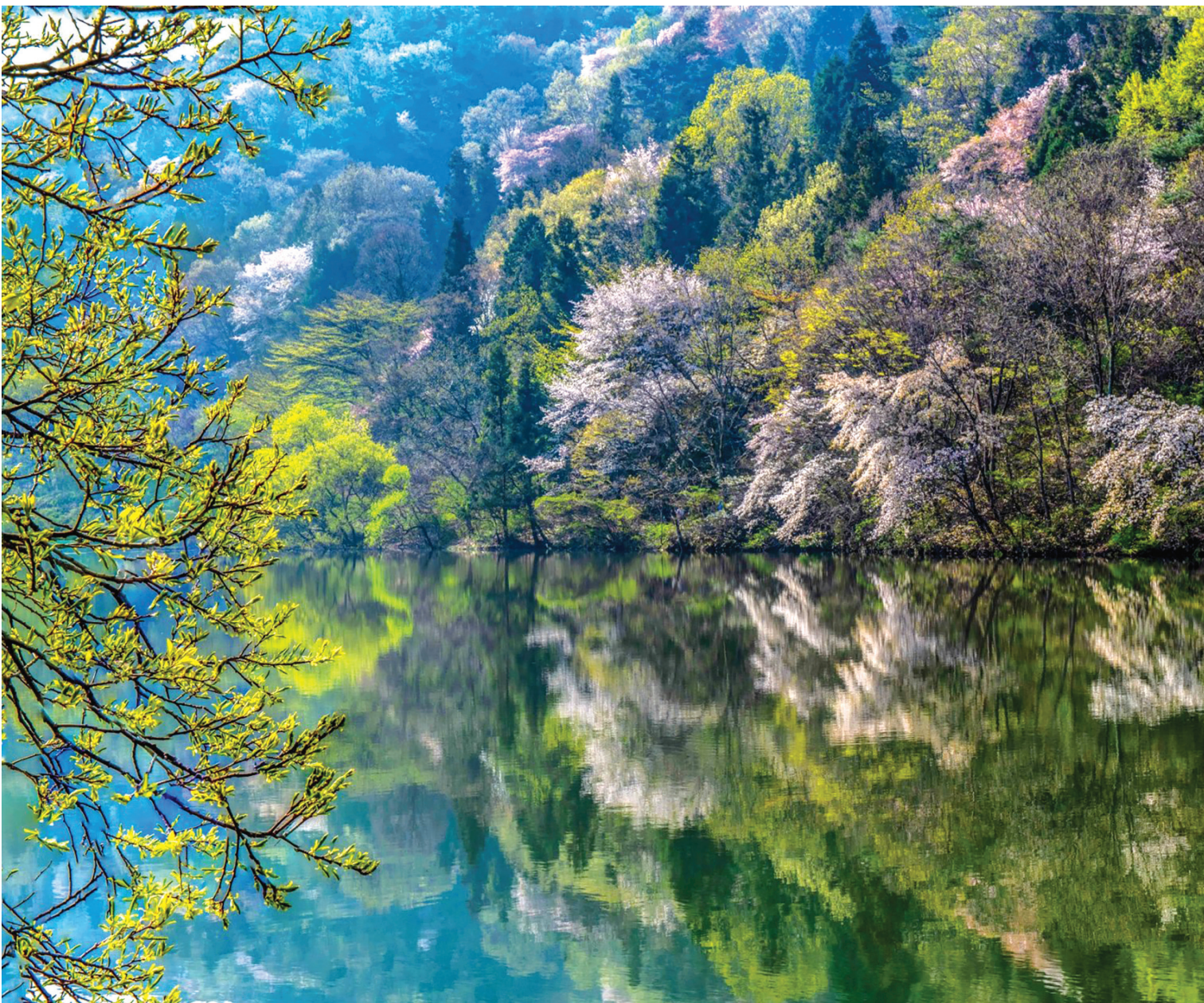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회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BE
THE FIRST
M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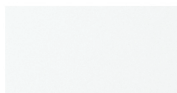
KMK GROUP

Say no to ordinary.

CRETA Alpha 출시



[신규] 무광 외장 색상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전담팀 대응
-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를 참조하세요

[한국인 금융상담]

- Sunindo KB Finance : +62 821-2595-5095 왓츠앱 문의
- 신한은행 : 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월간 한인뉴스 3 2024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 사진 이야기:

전남 화순군 세량지

미국의 유명한 뉴스 채널 CNN이 2012년에
'한국에서 가봐야 할 곳 50곳'에 선정할
정도로 빼어난 경치를 간직하고 있다.

세량지는 산 벚꽃이 만발하는 봄철에 찾아야
진가를 만끽할 수 있다. 이른 아침 물안개가
피어오르면서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호수에
비친 벚꽃이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은
사람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전국의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위해 매년 봄 화순을 찾고 있다.
(2021. 4.) - 양진영 (krakatau Posco)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2024 대선 결산... 인도네시아 향배는

9

[김재훈의 '세무 TALK']

세금 목적을 위한 재무 정보 접근 권한

10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선거에 도전하다!

<이지완>

14

인도네시아 해양 플랜트 해체 및 재활용
시장 현황 그리고 우리기업 진출 성과

<조일형>

16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contents

2024. 3. 통권 333호

22

대통령 선거 상황 및 대선
이후의 정치 방향 <안선근>

25

[여기가 맛집]
Villa Capri – PIK
<황지영>

28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7]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32

[특별 인터뷰]
오파 UGM 총장

34

[서상영의 한방칼럼 11]
다이어트 2

38

[행복에세이]
보로부두르 수호신 갈라 <하연수>

40

[반짝이는 그림책 이야기]
봄을 기다리며 <김별님>

43

Korea 360 설날 주간 풍성한
민속 문화 선보여

44

[인터뷰]
사공 경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47

[디카시 풍경]
꽃길 <김주명>

48

자카르타 한인의 공간, 콤폰렉과
쇼핑몰 그리고 코리아센터
<조연숙>

52

[반려동물 랜선집사]
탈탄! 이렇게 짝옥 함께
하는거야~ <황희연>

54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3
<신성철>

57

K-뮤지컬을 영화관에서
즐기자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1)
인도네시아 헌법(3)
<이승민>

61

2024 시사상식

62

갯벌과 인류
<고경남>

68

생활정보

2024 대선 결산... 인도네시아 향배는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치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고, 지난 2월 14일 치러진 선거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72)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대선 직전에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의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 프라보워 후보가 50% 전후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신속표본개표(quick count) 결과에서 과반을 기록함에 따라 프라보워의 당선이 기정사실화 됐다.

현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후보는 신속표본결과 57% 이상의 득표율로 오는 6월로 계획된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속표본개표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보여온 만큼 오차범위가 크지 않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경합을 벌였던 아니스 바스웨단(54) 전 자카르타 주지사과 간자르 뿌라노워(55) 전 중부자바 주지사의 득표율은 각각 25%와 17%로 프라보워 후보에 크게 뒤졌다. 인도네시아 선거의 공식 결과는 투표일로부터 한 달 후 발표될 예정이다.

프라보워 후보의 주요 당선 요인들을 살펴보면,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프라보워는 거의 5년 전부터 대선을 준비해 왔다.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패한 직후 2019년 7월에 프라보워는 자카르타 도시철도(MRT)에서 정적인 조코위 대통령과 극적인 만남을 연출했다. 그해 10월 프라보워는 조코위 2기 정부에 국방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조코위와 손을 잡았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셈이다. 수하르토의 전 사위인 프라보워는 국방장관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명도를 높였다.

프라보워의 당선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 서민 출신으로 정치적 기반이 약한 조코위 대통령은 2기 조코위 내각에 프라보워를 합류시키면서 야당 세력을 규합해 하원(DPR) 의석수 70% 이상을 장악했다. 이로써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해 고용촉진법(일명 옴니버스법)과 신수도 이전 관련 법률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임기 중 도로와 철도, 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 국민건강보험(BPJS) 확대와 저소득층에 현금과 기초식품을 지원하는 등 시의적절한 포퓰리즘과 집권 프리미엄을 활용해 임기 중 70%가 넘는 지지도를 보였다.



승리 축하행사에서 프라보워와 기브란- 스나얀 (14/2/2024)

이렇게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 조코위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프라보워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게 당선에 크게 작용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프로조(Projo)가 적극적으로 프라보워를 지지하면서 당선에 힘을 보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실시된 이번 선거운동은 기존의 거리에서 펼쳐진 방식과는 다르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개됐다. 프라보워 후보는 특히 짧은 비디오 영상을 제작·공유할 수 있는 틱톡(TikTok)을 통해 코믹한 춤인 조겟(joget)을 앞세워 젊은 유권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기존의 강한 군인 이미지에서 부드러운 이웃 아저씨로 변신했다. 이는 특히 25%가량을 차지하는 Z세대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유학파로 최연소 인도네시아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아니스 후보는 이슬람 지식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펼쳤다. 특히 사향은 아니스의 지지자 가운데 젊은 층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K-Pop 팬덤(Fandom) 문화를 활용했고 한국어로 소통하는 독특한 선거운동을 보여줬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총재가 이끄는 투쟁민주당(PDIP)의 지지를 받은 간자르 후보도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서민들의 생활 현장을 방문하는 블루스칸(blusukan) 등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활용했으나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이번 대선은 조코위와 프라보워 정치 세력이 협력함에 따라 기존의 대선과는 다르게 민족주의와 이슬람 정당의 경쟁 또는 온건 이슬람과 강성 이슬람이 경쟁하는 구도가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도 3명 후보 모두에게 지지하는 양상을 보여 양극화가 완화된다는 다소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당 정치가 더욱 약화되고 인물 정치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적했다. 또한 조코위 가문이라는 신흥 정치가문이 탄생함으로써 필리핀의 가문정치와 정치왕조 행태가 강화되는 모습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조코위는 개헌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선거법을 바꾸면서까지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을 부통령 후보로 만들어 큰 논란을 낳았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프라보워가 조코위의 국정 운영을 이어갈 것인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외교를 펼쳐왔으나, 조코위 2기 정부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라보워 정부가 출범한다면, 미중 경쟁 구도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프라보워가 집권한다면 행정수도 이전 사업인 누산타라(IKN) 메가프로젝트를 이어가겠지만, 조코위 대통령 재임기와 다른 경제정책을 쓸 것으로 보고 있다. 프라보워 후보는 2024년까지 세 차례나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경제체제를 좋아하지 않으며 큰 정부를 선호한다는 정책 메시지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프라보워 집권기에 국영기업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농민단체 HKTI 회장을 역임한 프라보워는 당장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후인 지난 2월 21일 조코위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아구스 하리무르띠(45)를 농지공간기획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아구스 신임 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 후보를 지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구스 장관의 등용을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자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36)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는 국가차원의 산업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Industry 4.0’의 개념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해 5대 제조업(식음료, 섬유, 자동차, 전자, 화학)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는 제조업 강국인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꼽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제조업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낙관한다. (끝)



세금 목적을 위한 재무 정보 접근 권한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익을 줄여서 제출하려고 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는 최대한 이익을 높여서 제출하려 하지만 이런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납세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최근 이슈 중 하나는 과거 은행에 제출했던 재무제표와 세무 당국에 신고된 자료 불일치로 인해 소명 요청이나 은행 자료를 근거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인도네시아가 아닌 국외 (한국, 싱가포르 등)에 예치한 금융 자산이 인니 세무 당국에서 알고 추징을 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이는 2017에 인도네시아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AEOI)에 가입하여 2018년부터 시행함으로써 2017년 5월 8일 대통령 긴급명령 1/2017호를 시행함으로써 세무당국에서는 모든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취득한 금융정보를 국가간 교환하고 있다. 여기서 금융정보는 금융계좌 소유자의 신분에 대한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에 관련된 소득, 금융 회사의 기본 정보 등이다. 또한 국내 금융 자료도 시스템화 되면서 작년부터 세무 신고 자료와 금융 정보간 불일치에 대한 이슈 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3월은 개인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신고서 작성시 직 전년도말 재산 및 부채 내역을 기입하여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인니 세무당국의 소득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직 전년도 순재산 증가액이 신고한 소득과 비교하는 시스템으로 순재산증가액이 소득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에 차액분은 탈루 소득으로 간주된다.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항상 소득과 순재산증가액을 비교하여야 하고, 신고하는 재산 내역도 꼭 확인을 하여야 한다. (끝)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선거에 도전하다!

2024년 인도네시아 총선거 (Pemilu 2024) 투표 후기

글: 이지완 PT. JINYOUNG대표



< 1. 투표소에 도착 >

인구 세계 4위, 1만 7천여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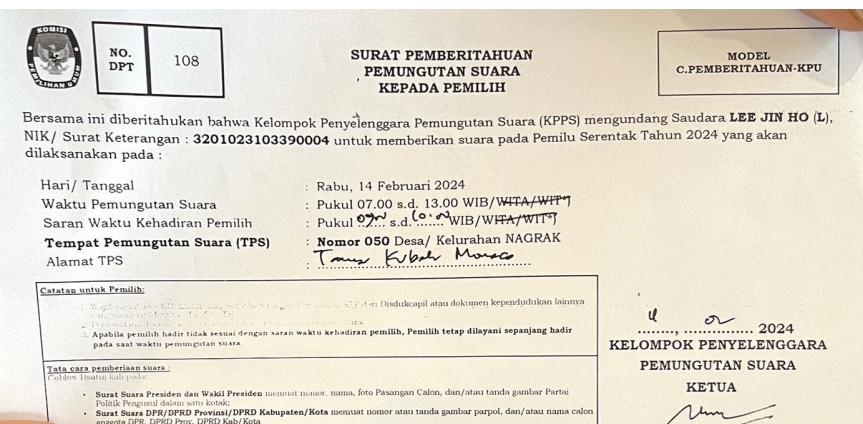
2024년 2월 14일, 향후 5년간 2억7,600만 명의 국민을 위해 대국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발전시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2024년 총선거에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다.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일이 밝았다. 투표소로 출발하기 전에 이번 2024년 총선거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 인도네시아 총선거관리위원회 (KPU)에서 공지한 2024년 총선거 투표일정 및 투표소

1. 투표 일정: 2024년 2월 14일, 오전 7시~오후1시
2. 투표소 (Tempat Pemungutan Suara): 총 823,220
 - 인니 국내: 약 820,161개
 - 재외국민 해외 투표소: 약 3,059개
3. 투표소 수용인원: 최대 500명 (5년 전 총선거 때 수용인원 과잉 사태로 대폭 줄임)
4. 투표 가능한 유권자수: 204,807,222명
5. 총선 참가 정당: 18개
6. 투표 용지: 총 5장
 - 회색 용지: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
 - 노랑색 용지: 국회의원 (DPR RI) 1 명 선출 - 총 580석 (후보 9,917명, 18개 정당)



< 2. 투표 통지서 >



< 3. 유권자 명단 서명 >

– 빨간색 용지:
지역대표의회 의원 (DPD) 1명 선출 – 총 152 석, 각 주에 4명 (후보 668명, 정당 없음)

– 파란색 용지:
주의회 의원 (DPRD Provinsi) 1명 선출 – 총 2,372석 (18개 정당)

– 초록색 용지:
시군의회 의원 (DPRD Kabupaten/Kota) 총 17,510석 (18개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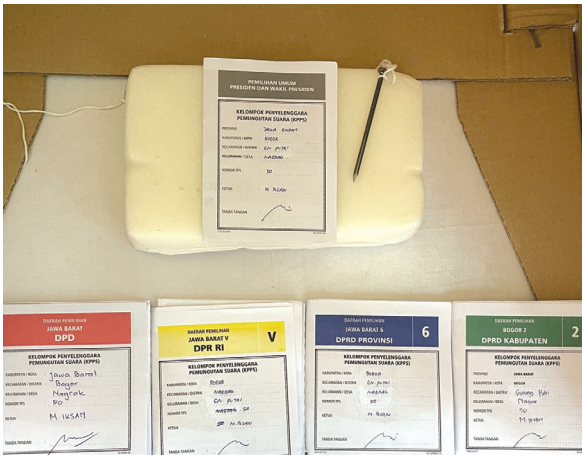
< 4. 투표용지 수령 >

이번 인니 총선거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단어가 있다. 인니어로 투표소 ‘Tempat Pemungutan Suara’ 라는 단어이다. 직역하면 ‘목소리를 모으는 곳’ 이라는 뜻이다.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게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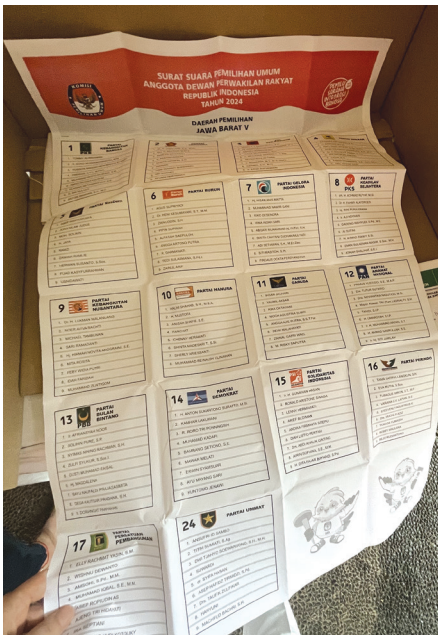
자, 이제 투표소로 출발하자.
추적추적 비 내리는 아침시간, 주택단지 내부 중앙 공원에 설치된 투표소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아주 좋다. 우리 동네는 투표소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투표소가 너무 개방되어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아닐까 싶다.

투표소에 가기 전에는 선거일 전에 본인의 선거구에서 발급한 유권자용 투표통지서 (surat pemberitahuan pemungutan suara kepada pemilih)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통지서는 투표소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신분증을 대조하면 유권자 명단에 서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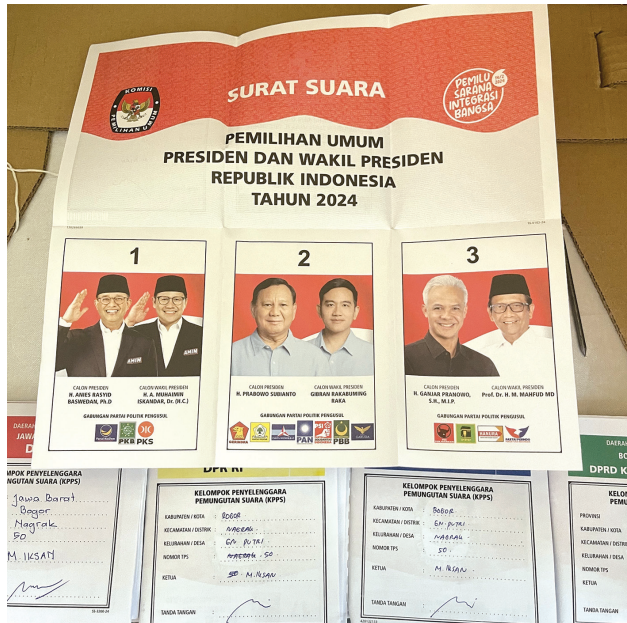
투표용지는 4개의 기표소 중에 한 자리가 빌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행히 나는 아침 일찍 가서 10분 정도 대기한 후에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었다. 투표용지 5장을 가지고 기표소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말로만 듣던 대못이 스폰지와 함께 놓여 있었다. 이 나라의 기표방식은 이주 특이하게도 못으로 투표용지를 뚫어야 한다.



< 5. 기표소 내 못과 스폰지 및 투표용지 5개 >



< 7. 국회의원 투표용지 >



< 6. 대선후보 투표용지 >



< 8. 골판지로 만든 반개방적 기표소 >

인니어로는 “Nyoblos” 라고 한다. 스폰지 위에 투표용지를 펴고 못으로 뚫으려는 순간 우리나라와 달리 기표할 칸이 없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아무리 찾아도 어디를 뚫어야 할지 몰라서 선거관리 요원에게 물어보니 해당 후보자가 인쇄되어 있는 곳에 어디든지 뚫으면 된다고 한다.

내 바로 옆 기표소에 있는 현지 할아버지도 나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해서 관계자에게 물어보는데,

과연 모든 유권자들이 해당 후보를 제대로 찍었는지, 개표시에 누구를 찍었는지 제대로 분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를 끝내고 나왔다. 투표하는데 약 5분 이상 소요되었지 않았나 싶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주의회의원, 시군회의원 투표용지에는 한 정당에 8, 9명의 후보자가 나열되어 있어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고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고령이신 유권자 분들은 대부분 기표소 안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유권자들의 대기줄이 길어졌다.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용지 5장을 투표함에 넣고 손가락을 보라색 잉크에 담갔다가 빼서 나왔다. 이번 인도네시아 총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하면서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인도네시아 선거시스템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밌었다. 무엇보다 한국 투표소는 매우 엄숙한 느낌이 드는데, 인도네시아는 마치 동네 잔치날과 같은 흥겨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5년만에 만에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인만큼,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모습이 참으로 밝고 즐거워 보였다. 땡 뚫린 개방적인 투표소가 투표소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일까?

참고로 투표소 선거관리요원과 참관인들은 거주지 통장 및 반장 등 동네주민들로 구성된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인도네시아 선거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투표절차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투표 및 개표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개표과정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의 안타까운 소식들도 사라지고 부정선거도 경감시키면서 선거일이 유권자들에게 즐거운 동네 축제로 정착하여, 인도네시아가 선진화된 민주주의국가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 2024년 총선거 투표절차 (사진 참조)

투표소 ⇒ 투표통지서 제출 ⇒ 선거인 명단 서명 ⇒ 이름을 호명할 때까지 대기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 (골판지) ⇒ 기표소 안에 기표용 못과 스폰지 준비됨 ⇒ 투표용지를 스폰지 위에 올려놓고 원하는 후보가 표시된 부분을 못으로 뚫음 ⇒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음 ⇒ 투표완료 인증하기 위해 보라색 잉크에 손가락을 담갔다가 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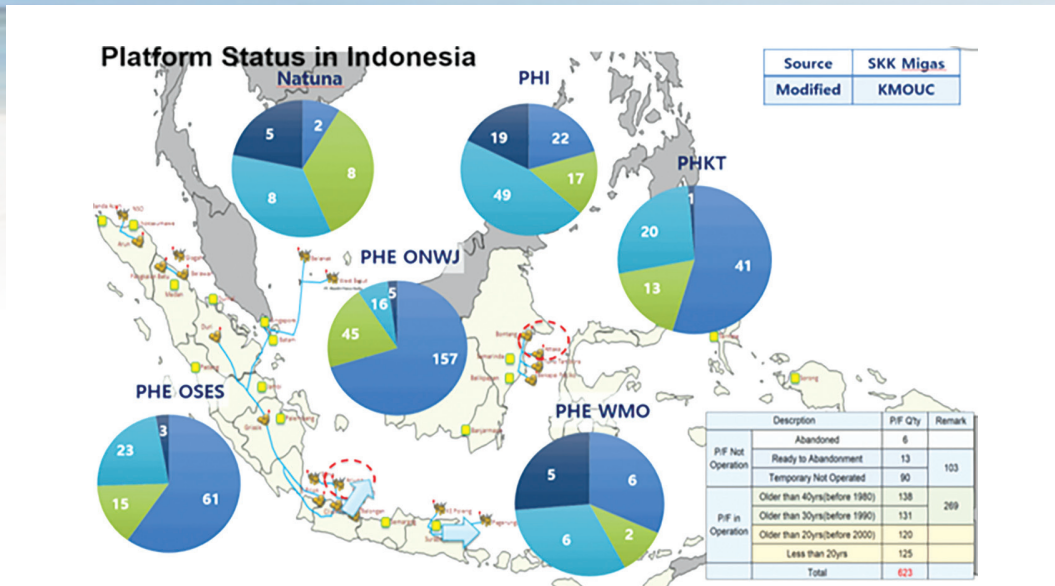
< 9. 보라색 잉크에 손가락을 담금 >



< 10. 기표후 투표함에 넣음 >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해체 및 재활용 시장 현황, 그리고 우리기업 진출 성과

글: 조일형(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장)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분포 및 내용연수 현황

인도네시아는 1966년도부터 해상 유가스전 개발을 시작한 이래 현재 유가스 생산을 위한 해양플랜트가 약 600여기가 전역에 포진되어 있다. 이중 약 70%이상이 20년 이상된 플랫폼(통상 플랫폼의 설계수명의 경우 20년)이며, 약 100여기의 플랫폼이 해상에 방치되어있는 상황으로 이는 해상 교통,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리스크가 높은 상황임에 따라 해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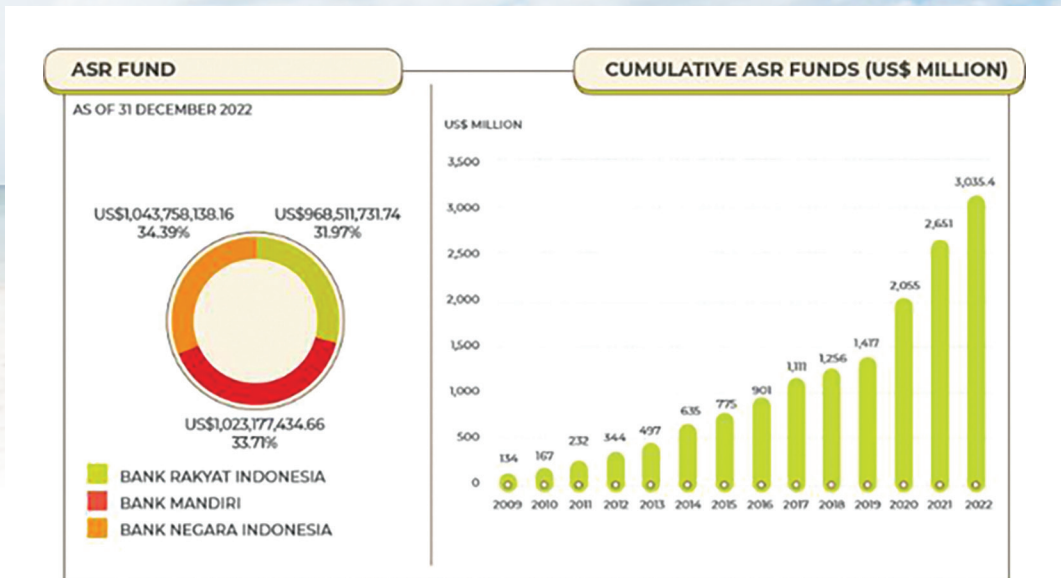
세계적인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Wood Mackenzie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의(특히 동남아시아) 해양플랜트가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유사하게 노후화 되어있으며, 이에 따른 해체시장 규모는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매우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이전의 인도네시아 정부와 세계 메이저 석유기업간의 광구 계약은 생산 이후 유관 설비에 대한 해체 의무조항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노후화된 플랫폼 해체 의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책임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만 2009년 이후부터는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 SKK Migas를 통해 해체 비용을 석유회사와 공동계좌를 통해 분기별로 적립을 하고 있고 2022년 기준 적립금 현황은 약 30억불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혁신적인 해체 기술로 인한 해체 비용 절감, 또는 이러한 플랫폼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이러한 협력을 공고히 하기위해 한-인니 해양플랜트 협력센터를 양국 해수부간의 합의 하에 설치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해체 및 재활용 기술에 대해 논의중에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체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여 이러한 해양플랜트 해체 분야 연구 및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를 통한 실증 사업을 국비 250억원을 들여 2021년도부터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2022년도 하반기 우리 국내 중소 중견기업 약 1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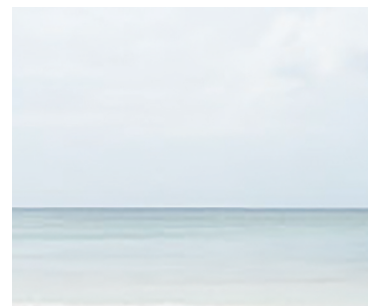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정부 해체적립금 현황(출처:SKK Migas)

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부 칼리만탄 해역에 소재한 Pertamina 광구의 해양플랜트를 해체하는 공사를 약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성공리에 수행하였다.

본 공사를 통해 주식회사 칸, APMC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관련 실적을 기반으로 곧바로 태국에서도 약 450억원의 해체공사를 수주하여 발주처인

PTTEP(태국 국영 석유공사)를 통해 공사 수행에 대한 호평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인니 해양플랜트 협력센터에서는 노후화된 해양플랜트를 해체하는 것 대신, 이산화탄소 저장소, LNG수입터미널 또는 원해 양식장으로 재활용하여 추가적인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 인니 정부 및 기업들과 지속적인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해체공사

<https://youtu.be/Rt5dq8pgG6A?si=fzxBBtWPSrZhaD6l>

<경제 비즈니스>

한·인니, 하늘길 넓어졌다는데… 항공자유화 ‘툏아보기’

양국 지방공항 간 운항 자유화 협정 체결… 관광산업에 청신호
협정에서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제외… 당장 가격 인하 효과 적을 듯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에서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됐다는데, 앞으로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인하되는 게 아니냐?” 라고, 양국을 오가는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이나 출장자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자카르타와 인천~발리 노선의 항공권 가격은 제한된 운항횟수로 인해 항공자유화가 체결된 인천~쿠알라룸푸르와 인천~싱가포르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이에 따라 인천~자카르타와 인천~발리 노선을 이용하는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모두가 적정 수준 이상의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양국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한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한-인니 항공회담이 지난 1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렸다. 주요 의제는 항공자유화협정이다. 회담 결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비수도권 공항 간 직항을 위한 ‘일부 항공자유화협정 3·4 단계’를 체결했다. 다만, 인천~자카르타 공항은 이번 자유화 협정에서 빠졌다. 이번 한-인니 협정에서는 인도네시아 측 주장으로 인천과 자카르타의 노선은 항공자유화 협정 3·4단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당초 오가는 노선이 고정된 채로 주 23회로 고정됐다.

항공자유화 또는 오픈 스카이(Open Sky)는 항공협정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해 시장기능에 항공운수권을 맡기자는 정책이다. 항공자유화협정은 여러 단계로 이뤄지며, 항공자유화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다. 이 중 제3·4단계 항공자유화는 슬롯이 확보되면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의 △부산 △대구 △청주 △제주 △무안 △양양 등 6개 지방공항과 인도네시아의 △바탐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릭빠판 △케르타자티(서부자바) 등 6개 지방공항 지방공항은 슬롯이 확보되면 자유롭게 노선이 개설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로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항공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한국 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구간에서 각각 주 7회 등 운항횟수가 총 주 28회 증대된다. (아래 표 참고) 그간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사 간 공동운항(Code-share)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자유화>

한국 6개 지방공항	인도네시아 6개 지방공항
부산, 대구, 청주, 제주, 무안, 양양	바탐,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릭파판, 케르타자티

<양국간 신설된 국제선 직항 노선 세부내용>

신설 노선	운항횟수
한국 지방공항(인천공항 제외)-자카르타	주 7회
한국 지방공항(인천공항 제외)-발리	주 7회
인천-바탐	주 7회
인천-마나도	주 7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한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을 요구하고 하고 있다.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 대사는 지난 1월 23일 안타라통신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하늘길을 확대하여 ‘Fly Together’ >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베트남으로는 주 200회 넘게 운항 중이고 태국과 필리핀으로는 주 100회 이상, 말레이시아로는 주 60회 이상 운항 중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우리와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 안 된 나라는 인도네시아뿐이다” 이라고 썼다. 이어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 발전은 물론 연간 약 3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사업 및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항공자유화를 통해 항공권 가격을 낮추자” 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양국 간 합의 통해

당장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인하되지는 않겠지만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노선에 참여함으로써 단계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며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은 국내선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선 위주로 자국 내에서 이동하는 노선 위주로 발달돼 있다보니, 한국과의 항공자유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 특히 국영 Garuda항공은 그나마 유지해왔던 국제선 영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체리 “인니를 동남아 생산 허브로 만들겠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체리(Chery)가 인도네시아를 현지와 동남아시아를 위한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이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체리는 올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EV)를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체리는 현지 공장인 PT Handal Indonesia Motor와 협력하여 2022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완전 조립(CKD) 계획에 따라 자동차를 조립해 왔으며, 이를 위해 초기 비용으로 2,500억 루피아(미화 1,588만 달러)를 투자했다. CKD는 해외에서 생산한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체리는 향후 5년 간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

고 밝혔지만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체리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내연기관차 모델 오모다 5(Omoda 5)와 티고7프로(Tiggo 7 Pro), 전기차 오모다 E5((Persepi),)를 출시했다.

Omoda E5는 체리가 중국을 제외하고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출시했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립한 이 차의 판매가는 5억 루피아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모다 E5가 TKDN(국산 부품 비율) 40%를 충족했다며 부가가치세(VAT)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가 3가지 모델을 출시했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한다. BYD는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 수입을 허용하는 대통령 규정 제79/2023호를 발표한 후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체리는 인도네시아에서 Omoda E5 500대를 주문받았고, BYD는 세 가지 모델을 합해 약 1,000대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아이르랑가 하르파르도 경제조정장관은 올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목표를 20만 대로 책정했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해 판매된 8만 대의 두 배 이상이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정부가 중국 자동차업체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국산 부품 비율을 2027년까지 60%로 끌어올리도록 요구했다며, 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비율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체리와 BYD 모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니켈 기반 배터리를 자사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유업계, 원료 수입 제한으로 생산 중단 위기

폴리에스터 생산 원료인 모노에틸렌글리콜(MEG) 수출국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가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며 선적을 중단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방직사생산자협회(APSyFI)는 지난 3월 9일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로 기업들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폴리에스터 공장들이 생산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파르한 아킬 APSyFI 사무총장은 무역장관 규정(Permendag) No. 36/2023에 따라 폴리에스터 생산 원료인 모노에틸렌글리콜(MEG) 조달이 어려워졌으며, 한두 달 안에 11개의 폴리에스터 생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르한은 인도네시아에 MEG 생산업체는 1개뿐이어서, 전체 폴리에스터 생산업체에 MEG를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역부 관계자 수한또는 ‘무역장관 규정 No36’은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무역부는 여러 업계 관계자 특히 수입업체와 플라스틱 관련 기업 기업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유예기간을 주었고, 이는 3월 10일 만료된다.

컨설팅 회사인 Baker와 McKenzie는 블로그를 통해 수입승인(PI) 신청을 위한 시스템의 준비가 부족할 경우 유예기간에 비즈니스 혼란이 발생해 수입 연기 또는 생산 중단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일본 대신 중국에서 열차 수입 결정

인도네시아가 철도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일본보다는 중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 자카르타포스트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 인도네시아가 일본 대신 중국에서 통근열차를 수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우쉬’ (Whoosh) 건설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지난 2월 9일 보도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근열차 차량 교체를 위해 중국에서 열차를 수입하기로 한 배경에 중국에서 더 많은 자금을 빌려야 하는 상황 때문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까르띠까 위르조앗모조 국영기업부 차관은 언론에 “아니요. (중국 프로젝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일축했다.

국영철도회사 KAI의 자회사로 통근열차를 운영하는 KCI(Kereta Commuter Indonesia)는 지난 1월 31일 중국에서 열차 3편성을 7,830억 루피아(미화 4,969만 달러)에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열차를 공급할 중국 기업은 중국 국영 철도 차량 제조업체인 CRRC Sifang으로, CRRC의 자회사이다.

CRRC는 우쉬에 전동차(electric multiple unit, EMU)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우쉬 운영사인 PT KCIC의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다.

CRRC는 중국 내 고속열차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으로, 46개의 자회사 및 계열사를 보유한 철도 부문 세계 1위의 기업이다

KCI는 광역 자카르타 통근 노선에서 노후 열차 10편성을 2023년에 퇴출시킨데 이어 2024년에 추가로 19편성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새로 수입하는 열차는 국영 열차제작회사인 PT INKA에서 개조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새 열차를 일본 기업에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업체로 돌렸다.

광역 자카르타 통근열차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기증한 중고 열차이고, 일부는 벨기에와 한국에서 수입했다.

엔 뿌르바 KCI 대변인은 지난 10월에 공식 입찰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보다 중국 기업이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부채 의존성으로 인한 결정이라는 추측을 부인했다. 올해 1월 인도네시아 교통부 대표들은 중국을 방문해 CRRC 대표단과 만나서 신수도 누산타라에 자율철도(ART)를 건설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2024년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4.7~5.5% 전망: 중앙은행

인도네시아은행(BI)은 2024년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을 4.7~5.5%로 전망했다고 2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BI는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인도네시아가 5.04%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2023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94%, 4분기에는 5.04%를 기록했다.

에르완 하리요노 BI 대변인은 “(올해) 총선과 대선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소비와 투자 증가와 신수도 개발을 포함해 국가 전략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투자 증가를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BI는 2023년 4분기에 전분기보다 경제가 성장한 요인으로 소비자 구매력 향상, 소비자 신뢰도 향상,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기간에 여행

수요가 증가한 것을 꼽았다.

BI는 2024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원자재 수출 실적이 여전히 약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르윈 대변인은 BI가 자체 통화 부양책을 통해 정부의 재정 부양책을 지지함으로써 국내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윈 대변인은 또한 운송 및 창고업, 숙박, 식음료, 도소매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경제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23년 4분기에 제조업 역시 강한 국내 수요에 힘입어 성장했다고 말했다.

BI는 2023년 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술라웨시, 말루꾸, 파푸아 지역이었고, 칼리만탄, 자바, 발리, 누사뎡가라, 수마트라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정치, 사회>

유력 당선인 프라보워, 신자유주의보다는 ‘큰 정부’ 추진할 듯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집권한다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재임기와 다른 경제정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프라보워 후보는 2024년까지 세 차례나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경제체제를 좋아하지 않으며 정부의 큰 역할을 선호한다고 정책 메시지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으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해 경제적인 효율성 제고를 추구한다.

프라보워 후보는 대선 토론회와 유세에서 보호주의를 지지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포퓰리즘 정책을 포함해 큰 정부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시장 지향적 정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프라보워가 지난 2월 14일 치른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자, 다음날 인도네시아 증시는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프라보워의 초기 발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선 기간에 프라보워에게 암묵적인 지지를 주었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코위 집권 10년은 경제 성장이 꾸준했고 인플레이션이 낮았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글로벌 전기자동차 공급망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료주의를 줄이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 집권기에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다를 수 있다. 프라보워는 2월 4일 대선 최종 토론회에서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신자유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단순히 규제 기관이 아니다. 정부는 선도자로서 앞장서서 필요할 때 개입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영기업의 역할 확대할 듯

경제학자들은 프라보워 집권기에 국영기업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프라보워는 자유시장 메커니즘을 싫어한다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을 토대로 경제전문가들은 그가 에너지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더 확대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싱크탱크인 경제법률연구센터의 비마 유디스띠라 아디느가라 경제학자는 “국영기업이 국가사업을 수행하려면 대규모 대출이 필요하므로, 이것이 국영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라며 “국영은행이 국영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코위 집권기에는 비대해진 국영 건설회사가 인프라 건설사업을 주도했고, 민간기업은 종종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

프라보위는 또한 식량 수입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싱크탱크인 경제개혁센터의 경제학자 모하맛 파이살은 “프라보위는 농민협회 회장이었다. 그는 식량수입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고, 바로 여기에 그의 열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강조했다. 2억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현재 쌀, 밀, 설탕, 쇠고기, 대두의 주요 수입국이다.

조코위 정부는 인도네시아군(TNI) 주도로 쌀, 옥수수, 카사바(싱콩, singkong) 같은 식량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식량토지(Food Estate)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프라보위는 국방장관으로서 식량토지 프로젝트를 감독했지만, 대통령 후보가 된 후 이 프로젝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가 재정 정책은

대선 킥카운트 결과대로 프라보위가 10월에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그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긴장의 지속, 기후변화 위협에 직면한 1조4천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경제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프라보위는 주로 니켈과 같은 광물의 국내 가공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차단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는 조코위의 정책을 확대해서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5%대에서 7%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주요 선거 공약은 그가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학교 급식과 우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약했고, 이를 실천하려면 연간 약 450조 루피아(288억1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의 수석연구원 아누쉬카 샤는 “무상급식과 기타 계획한 정책들이 실행된다면 보다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취해야 함을 시사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국가재정과 부채 비율이 오랜 기간 보수적으로 관리됐으며, 차기 정부에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프라보위는 국방장관으로서 인도네시아 군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지출에 착수했다. 그는 대선토론회에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제한선을 현재 ‘40% 미만’ 에서 ‘50% 미만’ 으로 조정하겠다고 발언해 투자자들의 불만을 촉발시켰다.

프라보위는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을 밝히지 않은 채, 새로운 조세기관을 설립해 GDP 대비 세수 비율을 크게 높ی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상황 및 대선 이후의 정치 방향

글: 안선근 박사 (Ali & Ali Consulting)

2024년 대통령 선거의 이모 저모, 선거인으로서의 직접 보고 느낀 점, 총선 후 전망을 적어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이 무탈하게 끝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 정치 안정으로 인한 경제 도약의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경제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새로운 투자 진출국, 세계 경제의 위기, 정치적 문제, 일부 국가의 전쟁, 유일한 투자 안정처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국가 인도네시아가 지금부터 총선 이후 정치, 경제적으로 희망의 종을 새로이 울리고 있습니다.

1. 2024년 2월 14일 대선 상황

대선 및 총선일, 선거 상황은 평소와 같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2.30분까지 각 지역 선거구에서 일괄적으로 선거가 이행됐고, 전국민 대 다수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당 및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지역구의원, 지역구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선거를 일괄 실시했다.

선거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선거상 절차에 따라서 사전 등록하고, 투표함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각각의 후보자에 넓은 캔트지 모양의 백상지에 후보자들의 사진에 못으로 구멍을 뚫어 투표하는 방식이고, 끝나면 바로 새끼 손가락에 푸른색의 잉크를 묻혀 선거권 당사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임하는 형태이다. 선거 당일 거리는 한산했고, 단 각 지역구 투표소(TPS)에는 매우

분주한 분위기였고,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당과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진지한 모습이었고, 일부 주민들은 선거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해당 지역의 선관위 도움을 받아 투표에 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는 우리 한국사람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받고, 남부자카르타 제 2선거구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 인도네시아 국적을 딴 한국 사람 중에는 우리 동포를 직접 선거하고 인증 샷을 찍는 등 따뜻한 마음을 드러낸 장면도 보여주었다.

2. 대선 당일 현황 보고 및 조꼬위 대통령의 현 정치 영향력 과시

오후 5시부터 7개의 정치여론 조사기관의 Quick

Count 사전 출구조사에서는 프라보워-기브란 대선 후보의 쌍두마차가 3명의 후보자 중에 최고 60.38% 낮게는 56.66%로 집계 되면서, 다른 2명의 대선 후보자보다 월등한 차이로 높게 집계됐다. 대선 당일 선거가 끝나자마자 오후 7시경 프라보워-기브란 대통령, 부통령 후보자는 자카르타 시내 메인 스타디움 스나얀 축구 경기장에서 자신들을 그간 지지해왔던 유권자들과 함께 사전 승리의 축하 행사를 크게 열었다.

인도네시아 대선은 1차 2월 14일, 그리고 각 후보자가 50%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다시 6월 24일 2차 선거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라보워-기브란 대통령, 부통령 후보자는 예상대로 조코위 현직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1차 선거인 2월 14일에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게 되면, 2차 선거 없이 당선 원칙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로 프라보워-기브란이 차기 대통령, 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번 선거는 “Ali & Ali Consulting”에서 이미 정치 강의 및 인도네시아 대선 전망에서도 사전 예측한 바와 같이 조코위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프라보워-기브란의 쌍두마차 후보자가 1차 선거에서 대선 판도의 승리를 할 것으로 사전 예측했던 것이 그대로 들어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초반에는 1차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프라보워-기브란의 경우 상대 다른 두 후보자의 경합을 해야하는 만만치 않은 대선 판도가 예상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코위 현직 대통령의 정·경제적 후광 인맥이 이번 1차 선거에서 승리를 다짐 한 듯, 2차 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승리를 단정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꼭 들어 맞았다. 조코위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파워가 이번 대선 맥락을 결정 짓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본다.

3. 다른 두 후보자의 반발 및 법정 대응

이미 사전 출구조사에서 확인된 바, 최종 선거 개표한 달여 동안 기다리지 않고도 대부분 약 20일 정도가 되면 일단락, 정치적 성향의 반대도 모두 정리되고, 각 당 및 정치후보자들의 수궁과 정치적 밀당의 협상을 통해 다시 정치적 해체 모여를 단행하여 각 당내의 연대 즉 연합 (다양속의 통일 국가 : Bhineka Tunggal Ika)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다양성 속의 통일 국가의 성향이 다시 여대 야소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각 정치 정당 밀약을 통해 내각 구성을 함께 한다는 단일화 원칙을 통해 재 단결 하나가 되는 인도네시아 전통적인 관례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이념이 강하다 볼 수 있다.

이미 프라보워-기브란 쌍두마차의 대통령 선대위 캠프에서 이번 상대 후보자이었던, 아니스와 간자르 후보자 진영을 이미 접촉, 이번 사전 출구조사의 대선 결과를 모두 수궁하고, 함께 인도네시아 정치 발전과 인도네시아 발전을 위해서 차기 내각 구성에도 함께 뜻을 모아 고른 정치 정당의 내각을 통해 정치 단일화와 안정적인 정치 발전을 함께 구성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정치적 협상은 시작됐다.

현재로서는 여당 KIB 지지 정당의 비율이 45.35%로 아직 정당으로서의 여대에 미흡하다. 그 이유는 메가와티 현 투쟁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략 17.2%로, 이번 프라보워 측에서 여대 야소



또는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집권 통치력을 안정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야당이 없는 정당 지지율 100%의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상대후보자들의 상대 당들 마저도 폭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 지략이 필요할 때다.

이미 프라보워 측근 조코위 측근은 대선 이후 승리의 맥락을 잡기 위한 정치적 물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으로서도 투쟁민주당을 안기 위한 정치적 연대 교섭을 시작했으나, 아직은 투쟁민주당 및 일부 대선 후보 1번과 3번은 연대의 기색은 아직 없으나, 중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정향상 최종 연대 정치로서 하나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투쟁민주당은 아직 연대 보다는 야당으로서의 정치노선을 선택, 정치 균등화 및 정치 연대당과 맞대응 하는 민주화 정치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고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확고한 방침하에 헌정위원회를 통해 1번과 3번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 선거 반대의 공명성을 기대하고 재선거 또는 다른 대응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미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세나 물밑 작업의 연대 그리고 일부 외국에서의 축전을 통해 프라보워-기브란의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프라보워-기브란 대통령, 부통령 당선자의 차기 정책적 행보 예측

-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 정책 및 경제 정책 거의 계승 가져갈 듯
- IKN 신수도 예정대로 강력한 드라이브 걸 듯
- 선거공약 유지를 통한 변화 예고
- 프라보워 대통령의 승리로 국방력 강화 및 방산 수요 크게 늘어날 듯
- 강한 민족주의 성향으로 자국민 보호 활성화 정책 강화 전망
- 방산 비즈니스 강화될 듯
- 수하르토 전 대통령 일가의 부흥 (전부인 티티 등등)
- 조코위 대통령 남은 임기 10월 31일까지, 차기 대선 인수위 기간까지 조코위 대통령 정책 의지 깊게 반영될 듯

5. 새 정부 프라보워 대통령의 한국과의 연계 움직임 중요

- 프라보워 라인 및 주변 인맥 구축 강화
- 국방, 방산 협력 등 협력 강화 요구
- 영농정책 활성화
- IKN(Ibu Kota Nusantara) 신수도 지향 지속
- 프라보워·하심 라인 구축 및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 인도네시아 투자 공동협력 투자 방안 매우 지향적임
- 에너지 광산 등 자원산업화 강화 방침 예고
- 프라보워 지지 기반 당 총재 및 고위급 인사들과의 긴밀한 접촉 시도 중요
- 최종 연대 정치를 염두에 두고 고른 로비라인 구축 필요

／ 인도네시아 이번 대선의 1차 투표의 끝으로 인도네시아 정치 안정과 경제발전 예고

／ 우리 기업의 새로운 물꼬 아세안 시장, 즉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최대 투자처로 변신

／ 한-인니 관계 더욱 확대화 되고, 우리 기업 인니 투자 붐물 예고

—여기가 맛집!—

Villa Capri - PIK

황지영 (자카르타 거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3월호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한국은 지금 봄이겠네요. 봄은 따뜻한 날씨와 함께 자연이 꽃 피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의 활동이 소소한 행복감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맘때쯤 한강에 돛자리 펴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며 보내는 시간들의 행복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없이 크지 않았나요? 공원에 가서 따뜻한 태양 아래 자전거 타면서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며 예쁜 풍경을 감상하던 그 행복감 기억하시나요? 비록 자카르타에서는 느낄 수 어려워서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행복은 찾아가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카르타에 나름 계획된 깨끗하고 정갈한 도시인 PIK (Pantai Indah Kapuk)에서 해변 따라 산책하며 맛있는 것도 드시고 산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식당은 자카르타 차이나타운 건너편에 있는 COVE 해변가에 위치한 양식당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식당은 Villa Capri입니다. 우리 한국 교민분들은 Selatan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PIK이라는 곳이 멀고 생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공항 근처에 나름 계획된 깨끗한 간척 신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8년 전쯤 처음 자카르타를 방문했을 때, 제 친구가 자카르타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리된 신도시라고 해준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한국에 비교해서 크게 와닿지 못했지만 몇 년 자카르타에서 지내다 보니, 큰 도로들, 신호등, 횡단보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해변과 큰 주차장 같은 것들은 보면 정말 그래도 다른 곳들에 비하면 깔끔한 계획도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가면 다양한 먹거리들도 많고 예쁘게 잘 꾸며 놓은 큰 식당들도 많은데요. 간척지인 만큼 비릿한 바다 냄새가 조금 나는 게 흠이지만 바다길을 따라 작은 Ruko들이 쪽 줄지어져서 산책할 수 있는 Cove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맛있고 예쁜 식당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탈리아 남부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양식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당에 들어서시면 귀여운 레몬 나무들과 노란색 줄무늬 벽지로 장식이 되어있어서 한눈에 봐도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의 느낌을 내고 싶었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벽에는 약간의 접시와 와인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이탈리아 사진들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귀여운 수영복들이 걸려져 있어서 확실히 이탈리아 카프리섬 같은 휴양지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요리는 Thousand layers potato (95,000 루피아 ++) 입니다. 정육면체로 깎둑 썰린 작은 감자튀김 같았는데요. 이 감자가 한 겹 한 겹 레이어드 된 느낌이라서 식감이 재밌었어요. 그 위에 트러플 크림소스가 올라가 있어서 굳이 따로 찍어 먹는거 없이 핑거푸드 처럼 손으로 하나씩 집어 먹기 좋았습니다. 튀김에 트러플크림소스라니 느끼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감자가 짭조름해서 딱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맥주 안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저녁 하시고 2차로 방문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 요리 꼭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요리는 Roma Spagetti (120,000 루피아 ++)입니다. 이탈리아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만 메뉴 이름에 끌려 선택한 요리인데요. 갈릭& 샐롯 버터소스에 파르마 햄, 버섯 돼지 베이컨이 토핑 되어 있고 위에 계란 노른자와 파마산 치즈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파르마 햄은 이탈리아 북부 파르마 시에서 생산되는 뼈 붙은 햄인데요. 훈제하지 않고 소금으로만 절여 1년 이상 숙성한 햄이라고 합니다. 항상 먹는 토마토나 크림 파스타는 지겨워서 선택해본 메뉴인데요.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돼지 베이컨을 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반가웠는데요. 이렇게 PIK은 화교들도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돼지 요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베이컨은 얇은 베이컨이 아니라 통베이컨을 작게 깎둑썰기 해서 씹는 식감도 좋고 훈제 향과 육즙을 더 느끼기 좋았습니다. 맵지도 않고 향신료 맛도 없고 자극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에게도 추천하는 요리입니다.

세 번째 요리는 Porchetta Steak (165,000 루피아 ++)입니다. 이탈리아 향신료에 구운 삼겹살 스테이크였는데요. 이탈리아어로 포르케타는 “작은 돼지” 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포르케타는 돼지고기 배나 등쪽부위의 살을 통으로 잘라서 버터를 바르고 여러 가지 허브와 올리브오일, 레드페퍼, 소금, 후추로 속을 채운 후 말아서 꼬챙이 또는 실로 단단히 고정한 후 천천히 구워서 완벽하게 익히는 훈제 삼겹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식당 정보 : <Villa Capri - PIK>

음식 종류 : 양식

가격대 : Rp 300,000-5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오전 11:00- 오후 23:00

주소 : Cove at Batavia PIK unit 49
Pantai Golf Island
Jl. Pantai Indah Kapuk No.1
Kamal Muara, Penjaringan, 14460

※ Google 참고

가니쉬로 매쉬포테이토와 로메인 상추 위에 올라간 아주작게 깍둑썰린 토마토와 양파 샐러드가 나왔고 소스로는 트러플 데미그라스 소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데미그라스소스는 쉽게 생각하시면 경양식집에서 볼 수 있는 오무라이스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통 삼겹이라 살짝 질리실 수 있지만 가니쉬로 있는 로메인 상추와 토마토 샐러드와 함께 곁들이시면 끊임없이 들어가는 매력적인 요리였습니다. 훈연 향과 허브향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통 베이컨 느낌도 났습니다. 이 요리 또한 와인보다는 맥주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요리였습니다. 또한 맥주 안주로 추천 드립니다. 저는 자카르타에서는 식당에서 돼지 요리를 찾기 조금 어려운 편이다 보니 보이면 무조건 돼지요리를 시키는 편인데요. 이번 주말 해변 산책하시다 이탈리아 카프리섬 여행하는 기분을 느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 저녁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차가 아주 밀리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주말 아침에 가서서 자전거도 타시고 산책하시다 점심에 가시면 행복하고 알찬 주말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3월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즐거워지는 한 달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우리가 따뜻한 햇살에, 연둣빛 새싹에, 알록달록 피어나는 꽃들에 기분 좋았던 것처럼, 자카르타에서도 푸릇하고 무성한 나무들에, 지나가는 귀여운 길고양이에, 비 온 뒤 산책하며 맡는 풀냄새에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4월에 더 맛있는 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디폰네그로 왕자와 지체전쟁

지난 호에 이어

그 모든 불화의 시작은 1811년 12월 28일 영국 래플스 총독대행의 일행이 족자를 방문했을 때의 전상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족자까지 오는 과정에서 방문한 자바의 다른 왕국에서 예전 네덜란드 덴덜스 총독이 세운 ‘장관에 대한 예우’를 받았던 그는 족자 술탄국에서도 같은 대우를 요구했다가 불같이 역정을 내는 하메꾸부위노 2세의 호위병들과 충돌하며 칼부림까지 갈 뻔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놈들이나, 영국놈들이나!”

술탄은 전쟁광 유럽 야만민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례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래플스의 의자를 술탄의 의자보다 조금 낮춤으로서 그날 충돌위기를 살짝 비켜갈 수 있었지만 이 첫 대면에서 크게 빈정이 상한 두 사람은 폭주 기관차처럼 이내 충돌궤도로 들어섰습니다.

래플스는 영국측 족자 주지사 존 크로퍼드(John Crawford)를 시켜 아디빠티 아놈을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하명꾸부위노 2세는 유약한 현재의 태자 대신, 보다 강단있는 망꾸디닝랏 왕자(Mangkudiningrat)에게 태자의 자리를 넘기려 마음먹

고 있었는데 영국은 성품이 온순한 아디빠티 아눔을 이후 족자의 왕좌에 앉히려 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영국도 그를 한없이 만만하게 보았던 것이죠. 지방총독 보고서에 따르면 태자는 아버지에게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꿰뚫어본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왕좌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술탄이 되기엔 너무 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이 태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게 된 하명꾸부위노 2세는 영국 총독부의 저의에 대한 증오를 더욱 불태웠고 아디빠티 아눔은 덩달아 부왕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즈음, 건국 이래 줄곧 서로 반목해왔던 족자와 수라카르타의 왕실은 영국군 진출을 맞아 함께 손 잡고 조직적으로 저항하자는 밀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지기도 전에 그 시도가 모두 들통나버리고 맙니다. 그들 술탄과 수난 사이에 오고간 편지가 영국 총독부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족자를 처서 다른 왕국들에게 본보기를 삼겠다.”

래플스 총독대행은 자기가 직접 나서 족자에

본때를 보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버르던 기회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시작된 하명꾸부위노 2세와의 반목이 결국 전쟁으로 비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래플스는 그 편지를 빌미로 족자 술탄국에 반역혐의를 걸어 1812년 6월 19일 영국군대는 라덴 마스 사이드가 세운 망꾸느가라 공국(Kadipaten Mangkunegara)과 손잡고 연합군을 편성해 족자로 쳐들어 왔습니다.

“왕자님, 저쪽을 보십시오!”

하궁 왕후가 살았던 뜨갈르쵸 저택에서 하인 한 명이 무흐타하르 왕자에게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무흐타하르가 고개를 들어보니 끄라톤 궁전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뜨갈르쵸에 나와 살고 있었지만 당시 영국 총독부와 관련해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뜨갈르쵸는 끄라톤에서 말을 타면 30분도 안되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고 하궁 왕후가 생전에 뜨갈르쵸에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을 반갑게 맞던 전통을 무흐타하르도 이어갔으므로 귀족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아 끄라톤의 소식을 늘 가깝게 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끄라톤 궁전을 네덜란드군에게 유린당했던 하명꾸부위노 2세는 지난 반년간 끄라톤을 경비를 크게 늘렸는데 그것은 오직 이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적군이 끄라톤에 다다른 것입니다.

“모두 무장하고 나를 따라 나오거라!”

그가 왕위계승서열이 높은 왕자였던 만큼 뜨갈르쵸의 처소엔 궁에서 보낸 백여명의 시종들이 있었는데 무흐타하르는 그들을 강한 사병(私兵)으로 조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병장기를 갖춰 들고 이제 막 뜨갈르쵸의 저택에서 출발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끄라톤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면 그

역시 왕가의 남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무흐타하르도 끄리스 단검을 품에 차고서 말에 오르려 했습니다.

“라덴 마스 온또위료(Raden Mas Ontowiryo)여! 거기 멈추거라!”

그 순간 말을 탄 사람 여러 명이 저택 안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무흐타하르 일행은 깜짝 놀라 칼을 뽑아 들었지만 그들은 이끌고 온 사람은 아버지 아디빠티 아눔의 형제인 머르타사나 왕자(Pangeran Mertasana)였습니다. 그는 그의 부친인 하명꾸부위노 2세의 괄괄한 성격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전투복을 차려 입은 그들은 막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온 듯 먼지투성이였고 부상을 입어 피를 흘리고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술탄께서 날 보내셨다. 너희 아버님도 신신당부하셨으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얼굴 가득 수염을 기른 머르타사나 왕자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빠른 말투로 술탄의 말을 전했습니다.

“술탄께서는 온또위료 네가 분명 군사를 끌고 올 것이라 하면서 반드시 막으라고 하셨다.”

라덴 마스 온또위료란 무흐타하르가 20세에 첫 결혼을 할 때 하명꾸부위노 2세가 내려준 칭호였으므로 궁전에서는 무흐타하르 대신 온또위료라고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술탄 전하와 아디빠티 아눔 태자께서는 모든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온또위료 왕자와 그 수하들이 뜨갈르쵸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라 명하셨다. 알라의 도움으로 끄라톤이 이민족을 물리친다면



1810년대 동인도의 세포이 부대 병사들

위대한 신께 찬양하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오늘 죽는 것은 끄라톤 안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족하다. 그러니 궁 밖의 왕자들은 자중자애하며 후일을 도모하라! 부왕과 태자께서 그렇게 전하라 하셨다!”

“숙부님, 끄라톤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어찌 또 다시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라덴 마스 온또위료는 술탄 전하의 명령을 받들지 않을 셈이냐?”

머르타사나 왕자의 비감한 목소리는 마치 피를 토하는 듯했습니다. 무흐타하르와 그 시종들이 어깨를 맞대고 북적이는 뜨갈르쵸 저택의 마당은 마치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보니 저 멀리 끄라톤에서 사람들의 함성과 대포소리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무흐타하르는 다시 말머리를 돌리려는 머르타사나 왕자의 말 고삐를 붙잡았습니다.

“숙부님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영국군과 망꾸느라가군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내 부대의 거의 대부분을 잃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들의 죽음을 절대 헛되이 만들지 말라. 난, 당연히 끄라톤으로 돌아간다. 내가 이 전장에서 죽는

다면 반드시 부왕을 지키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 뭇까지 내가 싸울 것이다. 적들이 이곳까지 닥칠지 모르니 너희들은 뜨갈르쵸와 온또위료 왕자를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한다!”

머르타사나 왕자 일행이 흠뻑뻑을 일으키며 저택을 빠져나가자 이제 시종들은 무흐타하르를 겹겹이 둘러싸고서 무릎을 꿇었고 고개를 숙인 무흐타하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812년 6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영국군이 죽자 끄라톤궁을 공격해 벌인 이 사건을 스페히 전투(Geger Sepehi)라고 부릅니다. 스페히(Sepehi)란 당시 영국군이 운용했던 인디아인 용병 스뽀이(Sepoy)부대의 인도네시아식 표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1812년 6월 13일 스뽀이 부대가 전체 병력의 반쯤을 차지하는 영국군이 야음을 틈타 프레더부르크 요새(Benteng Vredeburch)에 은밀히 입성했고 래플스 총독대행은 며칠 후인 6월 17일 죽자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5시경 영국과 손잡은 노토푸수모 왕자의 가족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끄라톤 궁전을 떠나 요새로 피신했고

그 추종자들은 영국군과 약속된 표시인 하얀 천을 왼쪽 팔에 묶고 영국군과 합류했습니다. 1810년 12월 네덜란드의 크라톤 공격 당시 하명꾸부위노 2세의 편에 서서 함께 저항했던 노토푸수모 왕자가 불과 1년 반 후인 1812년 6월 이번엔 영국군 편에 서서 크라톤 공격에 가담한 것입니다. 영국 기병대를 급습해 소기의 성과를 올린 라덴 하르야 신두레자(Raden Harya Sindureja)의 부대만이 이날 전투에서 크라톤 궁전 측의 유일한 승전사례였습니다. 그외의 모든 방어선은 철저히 열세에 몰렸습니다.

레플스 총독대행이 왕위를 태자에게 양위하라는 최후통첩을 술탄에게 보낸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었습니다. 하명꾸부위노 2세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레플스는 빌미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요구가 거절되자

6월 19일을 기해 영국군을 크라톤 궁전에 경고포격을 가했습니다. 지척인 프레더부르크 요새에서의 포격은 위협적이기 짝이 없었지만 강경한 술탄은 이를 무시하고 결전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의 본격적인 포격이 시작되자 크라톤 동쪽 방어선에 설치된 끼야이 나가룬팅(Kyai Nagarunting)의 포대의 화약통이 맞아 폭발을 일으켰고 크라톤 경비대의 스탈 포대(Brigade Setabel) 병사들이 불덩어리가 되는가 하면 부기스 부대가 지키던 무기고도 포격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 치열해지던 전투는 다음날 절정에 이르러 결국 영국군의 승리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날 새벽 영국군은 족자 화교사회 우두머리 탄진싱(Tan jin Sing)이 준비한 대나무 사다리를 타고 크라톤 궁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따루나수라(Tarunasura)를 비롯한 뽀짜수라(Panca-sura-다섯 개의 관문)가 모두 파괴되고 그곳으로 영국군이 쇄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왕족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엔 술탄의 사위로 크라톤 경비대 총사령관이었던 간중 라덴 뚜면궁 수마디닝랏(KRT Sumadiningrat)과, 아디빠티 아눔 태자의 어머니 크다톤 왕후(Ratu Kedaton)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따루나수라 관문(Plengkung Tarunasura)

출처 - http://krjogja.com/web/news/read/3144/Lima_Plengkung_Kraton_yang_Sarat_Sejarah

inni 첫 한국인 유학생과 결혼한 오파 UGM 총장

“오래 전에 한국 가요 ‘사랑해’와 ‘나비소녀’를 즐겨 불렀습니다.” 오파 에밀리아(60, Ova Emilia) 가자마다대학교(이하 UGM) 총장은 한국과의 오래된 인연을 이 같이 말하면서, “한국은 저개발 국가에서 빠르게 성장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이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지난 2월 19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한인뉴스와 데일리인도네시아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말했다.

UGM에서 드위꼬리마 까르나와띠 총장(2014~2017, 현 기상기후지질청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장이 된 오파 총장은 UGM 의과대학장을 거쳐 2022년 5월 총장에 선출됐다. 오파 총장의 부친은 국립 IAIN 수난 깔리자가 대학교와 인도네시아이슬람대학교(UIN)의 총장을 역임한 학자이다. 오파 총장은 족자카르타(이하 족자)로 유학 온 인도네시아 첫 한국인 유학생 장근원 씨를 만나 1990년에 결혼했다.

한국인 유학생인 장근원 씨는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 3학년 재학 중 1977년 한국 최초의 인도네시아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족자에 있는 IAIN 수난 깔리자야 대학에서 공부했다. 당시 이 대학의 자이니 다흘란 총장은 장근원 씨의 성실함을 인정해 외동딸 오파 씨와 결혼을 승락했다고 한다. 장근원 씨는 족자에 있는 종합병원 해피랜드 메디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오파 에밀리아 UGM 총장과의 일문일답

Q. UGM에서 두번째 여성 총장으로 선출됐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양성평등 수준은

A: 인도네시아 사회는 원칙적으로 양성평등이 지켜지는 사회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 실례로 UGM의 졸업생의 60%가 여성이다. 이는 고등교육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총장이 남성이라면 일정 비율의 여성 부총장을 둔다. 정부와 정치계에서도 양성평등을 위해 일정 비율의 직책을 여성에게 배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Q. UGM과 한국 대학교 간 협력 방향은

A: UGM뿐만 아니라 다른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학교에서 언어와 문화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 공계와 바이오메디컬 등 의료 보건 및 농업 분야로 확대하기를 희망한다. 또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한국 학생들도 인도네시아로 유학해 균형있는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Q. UGM과 한국 대학교와 교류 사례는

A: 한국외대와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오래 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한서대학교와는 15년 넘게 봉사활동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형제와 같은 학교이다. 한서대학교 해외봉사단이 UGM 학생들과 함께 족자 오지마을을 찾아가 펼친 주택 보수와 농로 보수 등 봉사활동은 모범적인 협력 사례라고 할 수 있다.

Q. UGM 한국문화학과는

A: 한국학과 경쟁률은 2015~2023년 입학생의 경우 ‘47 대 1’ 정도로 타학과와 비교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위낙 경쟁률이 치열하다보니 합격과 불합격 간 차이가 근소하다. 한국문화학과 인기가 좋아서 입학정원도 45명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늘려서 올해는 65명을 선발했다.

Q. 족자는 물론 인도네시아 전역에 한류 열풍이 뜨거운데, 한류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은

A: 한국은 최근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에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한류가 강한 영향권에 있다. 한국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음식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한류가 현지에서 전통 문화에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글로벌 역동성은 피할 수 없다.

Q.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나, 여가 활동은

A: 시간이 나면 독서를 한다. 인도네시아 젊은이들과 같이 한국 드라마를 즐기지는 않는다. 오래 전에 한국 노래를 즐겨 불렀지만 요즘에는 오래된 팝송이나 인도네시아 가요 부르기를 좋아한다. 개인적인 원칙이라면, 무언가에 중독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중독은 논리적인 사고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UGM 발전 전략에 대해

A: UGM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오지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에 기회를 주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산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향상된 오픈스카이 협정을 체결했는데

A: 족자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 주변에 불교와 힌두교 문화재 및 족자 왕궁 등 풍부하고 훌륭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항공협정인 오픈 스카이(open sky)를 통해 한국과 족자 간 관광산업과 교육 등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 또 물가도 타지역과 비교해 저렴해 인기있는 여행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끝)



Ova Emilia UGM 총장

지가 다이어트 한다고 한참 깎칠 때 형님이 한마디 합디다.

사람은 말이어 본성이 식탐이 있단 말이어. 그러니 음식욕구를 참지 못한다 소식해봤자 헛거야! 그래서 전 그때 결론을 내렸슈. 다이어트 실패는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의지력이 약해서도 아니다. 그동안 의지력이 약하다.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시방 눈물이 핑~돌것이어.

우리 몸은 생명유지가 첫 번째다, 생명유지를 위해서는 각종 영양소가 필요한 건디 영양소가 부족할 때 뇌에서 말이어 음식섭취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강력히 보낸단 말이어.

그런게 이 신호가 식욕을 증가하고롬 만드는 것인디,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한테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이구먼.

이러한 본능적인 현상을 극복하려 허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야무지게 잘못된 생각인 거, 다시 말하면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이말이쥬.

두 번째: 빠른 포기

시방 이게 무슨 야그냐 허면,

다이어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것쥬, 근디 여기서 야그하고 싶은 말은 속도 보다는 방향과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랑께유. 단기간에 10킬로를 감량했다고 치자구유, 헌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 가든 건강과 몸매 모두 얻는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것어유!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내려 허기 보다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실천허면 올메나 좋아유. 계속 허다보면 노하우도 생구고 말이어, 수정해나가면서 도사가 되지 않겠슈, 이러니 저러니 해두유, 포기않고 꾸준히 해나가면 분명히 건강과 몸매 모두 쟁취할 수 있단 말이구먼유 암만유.(밑줄 짹~)

예를 들어 아는 성님이 3개월간 헬스를 한답시고, 수~년간 헬스를 함시로 얻은 다른 사람 몸매를 보고, 왜 난 안 되는 거여? 도대체 언제쯤 저렇게 되는 거여? 요라고롬 비교를 하든 어떤 생각이 드슈?

사람마다 3개월 운동 허도 티가 나는 사람있구유, 티가 별로 나지 않는 사람이 있구만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랑께요.

남들은 얼마 안 해서 감량성공 했다던디, 나는 안된다고 푸념한적 있으시쥬? 기억을 되짚어 보면 올메나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단가~ 생각해볼 문제구만유.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쥬. “몸은 거짓말을 안허~”

몸에 공을 들인 팬클럽들 눈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만유.



세 번째: 무작정 남들을 따라하기.

넌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 할것 있슈! 주위에 큰소리 치고, 글까지 써가면서 굳은 결의를 다졌쥬!! 근디 막상 결과가 시원찮으면 어떡유~? “역시 나는 안 되는 갑여~” “오매! 포기허구 다음에 다시 허~” 등 부정적, 회피적 생각을 한다는 거쥬. 넌들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음 시로 축약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인디, 이런 복잡한 것을 특정 정보만 가지고 맹신해서 따라하는 것은 노노노 랑께요.

위에서 언급했쥬.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구만유, 만약에 말이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 나가지 못하믄, 이 또한 다이어트 실패의 큰 원인이어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구만유.

-건강과 몸매 관리법

애미나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까부는 이유는, 건강과 늘씬한 몸매를 원하기 때문인 거야 알갓쥬!

비만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에 노폐물이 많아져서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뿐더러,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미쳐 간나들 성장 과 여성동무들의 갱년기같은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라우. 내래 남조선 아새끼들 보면 맨날 먹는 것이 기름덩어리에, 밀가루 덩어리를 먹는데, 걱정이 되가 죽갓어. 남남북여 할 것없이 잘 관리된 몸매는 상대에게 호감도를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다들 배웠을끼야.

기래서 우리 조선인민들은 건강과 몸매 둘 다 잡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니갓쥬

어떤 간나새끼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감량이 가능하다” 한다면 동무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매까? 저건 다 뽕이야, 그런 게 어딴여,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드십매까? 안 그러면, 그래 충분히 먹으면서 살 뽕 수 있어! 맞아 이 방법이야! 라는 생각이 드십매까?

1.장기간 계획을 세워라

만약 동무들이 단기간에 폭풍 다이어트를 한다고 갑치면 몸에 무리를 주는 행위라우, 구래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도 힘들뿐더러, 설령 감량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요요현상이 나타나면 또다시 단기간 폭풍다이어트를 함으로써, 몸을 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 있다~ 이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들은 다이어트 사명을 잊지 말고 장기간 꾸준히 1) 식단 2) 운동 3) 생활 습관을 조절해 나감으로써 말이다, 이웁고 습관이 몸에 박히어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면서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기야. 결과적으로 요요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는 위대한 과학자 동무들에 말씀인 거이다. 그러니 내말 명심하라유!

“인간은 간사한 존재이니까, 감량에 만족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족속이야.”

절대 단시간에 승부보려고 하지 마시라요.

2. 올바른 생활습관

다같이 복창하라우.

1. 밤 10시 이후에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는다.
2. 군것질은 건강식으로 한다.
3. 식사는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 삼킨다.
4.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한다.

근데 말이야 우리 북조선에서는 상류층에서나 다이어트를 하는 거지, 조선인민공화국 간나들은 살 찌는 게 유행이야.

내래 살빠지는 비법을 간단히 설명해주갠써. 잘 들으시라우!

아우지 탄광 들어봤을 기야. 거기서 적게 먹고 일은 많이 하면 뼈와 살갓이 붙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기지. 결론적으로 남조선에 비만이 많은 이유는 인풋은 많고, 아웃풋은 적다는 기야. 이렇듯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란 말이지. 건강하면서도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들라 몸부림친다면, 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거 아니겠니. 노력안하고 날로 먹으려는 동지 있음 나와보라우. 내래 아우지 탄광으로 티켓 끊어 주갠써.

-Q&A (AI 컴퓨터가 읽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세요.)

식욕 억제하는 방법 알려 주세요.

다이어트는 평생 관리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100세를 넘어 120세 시대로 넘어들고 있습니다.

60-80세 에도 운동으로 몸짱을 만들고, 관리를 통해 동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식단, 운동, 지식습득, 보조요법(건강기능식품, 기계관리 등), 휴식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올바른 습관을 길러 늙을 때까지 쭉~ 영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5년 10년 이상 하지마시고 올바른 습관을 길러서 다이어트 건강관리가 생활에 스며들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임신 전후 다이어트 꿀팁 알려주세요.

남녀모두 임신 전 몸을 만들어 봐야 한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남성)와 발(여성)이 좋아야 온갖 바이러스,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해 내고, 새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나 꽃을 피우는 결실을 맛볼 수 있겠습니다. 씨와 밭이 좋으려면 기본적으로 몸이 건강해야 하는데 무리한 다이어트로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생식기가 약해지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임신전후로는 체형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고 몸이 안정되는 6개월~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여 예전의 몸매를 되찾아가고, 장기적인 실천으로 출산 전보다 더 매끈한 몸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대들의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좋나요?

청소년기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얼굴과 체형 모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형관리는 단거리 달리기와 아님 마라톤임을 알고,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려는 시도가 바람직합니다. 특히 키가 크고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과도한 식욕억제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뼈와 근육, 여러 장기들이 충분히 발육하지 못하여,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작고 체형이 왜소해지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체중감량을 위해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다이어트 방법이 다른가요?

네, 당연히 다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여성은 굶기를 먼저 시작하고 남성은 운동을 먼저 시작합니다.

아이러니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다이어트 방법을 바꾸어서 해야 합니다.

즉, 여성은 운동을 시작하고 남성은 식단조절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은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 근육양이 적으므로 근육량을 늘려 줌으로써 기초대사량을 높여 주어 보다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에 비해 많은 근육량을 가졌으므로 탄수화물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축적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계속 다이어트 해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는 체력과 면역력도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휴식과 영양 상태를 체크하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난후 다시 다이어트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약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강행하게 되면 체중감량도 안될 뿐 아니라 피로누적과 영양부족 현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보로부두르 수호신 깔라



하연수(한국문화협 인니지부 감사)

보로부두르에는 왕방울 눈에 턱이 없는 두상들이 숨어있다. 설계자들은 이 두상을 돌탑 구석구석에 감시 카메라처럼 배치해 놓았다. 보로부두르의 수호신이라고도 불리는 ‘깔라’ 두상이다. 이 ‘깔라’가 출세 가도를 달린다. 건달 ‘스바랍하누’가 잡신인 아수라 깔라가 되고, 거기서 군주, 지배자 야마라자가 된다. 그 야마라자가 훗날 동아시아로 가서 야마는 염마, 라자는 대왕, 즉 염라대왕이 되었다고 한다. 흙수저의 끊임없는 자기 발전이고 변신이다.

힌두 신화 속 그날, 신들에게 영원불멸의 약인 ‘암릿’을 나누어 주는 날이었다. 이 약을 마시면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고, 아무리 비천한 신분이라도 신의 왕, 인드라로부터 신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한다. 스바랍하누는 암릿을 훔쳐 먹고 신이 되려고 했던 천민 출신 건달이었다. 그 건달이 신들 사이에 숨어들었다고 한다. 순찰 중이던 여신 ‘모히니’가 ‘암릿’을 훔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급히 바퀴 칼 ‘짜크라’로 암릿을 훔치는 건달에게로 날렸다고 한다. 짜크라가 몸에 닿기 전에 이미 암릿은 스바랍하누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버렸다. 스바랍하누는 짜크라에 턱은 잃었지만 신이 된 것이다. 불멸의 존재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몸과 분리된 머리를 깔라, 몸통은 ‘깨두’라고 불렀다 한다. ‘깔라’는 수호신이 되어 보로부두르를 지키고, ‘깨두’는 보로부두르가 있는 지역 이름으로 남아 있다.

아수라들이 설치며 흔들어 놓은 상태를 아수라장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모든 아수라가 나쁜 신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깔라는 도둑질하는 건달 스바랍하누에서 시작했다. 그런 건달이 아수라신 깔라가 된 후 보로부두르 수호신이 되었다. 나쁘지 않은 신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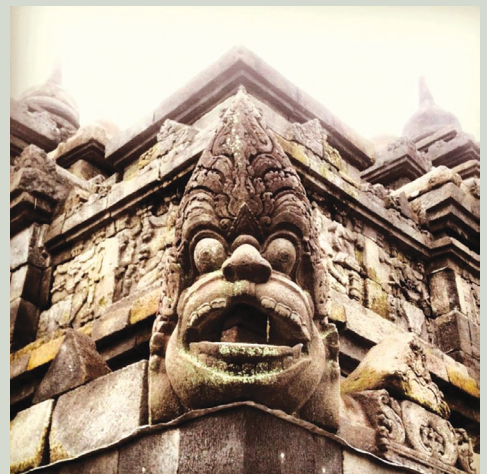
그렇게 보면 굳이 신이 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어느 정치인 말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더라도 신이 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깔라는 각 층 벽면, 그리고 모서리. 위층으로 올라가는 아치형 돔과 문 위에도 꼭 있다. ‘깔라’ 두상들은 감시 카메라처럼 빈틈없이 배치되어있다. 그러면서도 그 두상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 눈에 띄지 않게 잠복근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수많은 사각지대를 24시간 살피는 깔라의 두상들이다. 보르부두르의 수호신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소마교수가 말한다. 최선을 다하는 수호신의 모습이다. 훗날 천상계를 수호하는 염라대왕의 시작을 보로부두르에서 보고 있다.

소마교수를 따라 동남쪽 돌벽 앞으로 갔다. 햇빛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 동쪽 돌벽과 달리, 남동쪽 돌벽에는 어둡고 축축한 새벽 침묵이 붙어있다. 소마선생의 손끝을 타고 내 눈은 돌벽 여기저기를 두드리며 돌아다녔다. 깔라는 쉽게 모습을 나타내 주지 않는다. 아직 햇빛이 들지 않아서 깔라가 나오지 않는다고 소마교수가 위로했다. 경내 호텔에서 커피 한잔하고 다시 돌아왔다. 햇빛이 남쪽 벽으로 발을 뻗고 있었다. 돌벽 여기저기 깔라가 감시 카메라처럼 목을 내밀기 시작했다. 이들은 마치 성스러움 보로부두르를 악신들로부터 지키는 하급 신의 모습이다. 천상으로 가는 길에서 악인들을 걸러내는 대법관 판사 염라대왕의 초기 모습이다.

삼층, 사층 계단 통로 아치 문들을 지나 오층 북쪽 통로 앞까지 왔다. 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있었다. 마지막 계단 통로 너머로 그곳이 보였다. 몇 발짝만 더 올라가면 원단 육층 장엄한 화엄의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 곳이다. 그만 주저앉아 버렸다. 소마선생은 손가락으로 통로 위 아치형 문을 가리켰다. 왕방울 눈 깔라가 방문자들 머리 위로 꽃비를 뿌려주고 있었다. 꽃비 때문인지 그 험상궂은 얼굴이 선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래, 저 깔라다. 동아시아 지하 세계로 가서 시왕전 발설지옥의 왕이 된 깔라다. 내가 중얼거리며 깔라를 다시 쳐다본다. 내 중얼거림에 소마선생은 퍼즐을 다 맞춘 소년처럼 미소를 지었다.

비천한 건달 스바랍하누, 아수라 깔라, 야마라자, 지하 세계의 심판관인 염라대왕이 되는 성장 과정을 본다. 반지하 집 아이가 성장, 대법관이 되는 발전 과정이다. 그래서 깔라의 성공의 폭은 훨씬 더 크다. 염라대왕도 유명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필자는 절에 잘 가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번 귀국길에는 시왕전으로 가서 염라대왕이 된 깔라를 만나봐야겠다.



봄을 기다리며



『숲으로 보낸 편지』

가타야마 레이코 글, 가타야마 켄 그림, 김누리 옮김, 상추쌈, 2022

もりのてがみ (1990)

편지를 주고받은 마지막 기억을 떠올려보면 너무도 아득하다. 감수성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같이 책도 공유하고 일기도 공유했던 단짝이 남미로 이민을 떠났다. 서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꼭 편지하자고 주고받은 낯선 타국의 주소. 국제 우편으로 보냈던 그 편지들이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다. 편지는 상대를 향한 마음을 전하는 도구였고, 또 내가 전한 마음에 대한 답을 바라는 간절한 기다림이기도 했다. 같은 마음으로 숲 속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낸 아이가 있다. 아이의 편지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숲으로 보낸 편지』 속 히로코의 이야기다.

숲 근처에 사는 히로코는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어 밖에 나가 놀 수가 없다.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추운 겨울이 오기 전 같이 놀던 숲 속 친구들에게 제비꽃 피는 봄이 오면 꼭 다시 만나자는 편지를 쓴다. 기나긴 겨울 내내 초록 눈을 한 다람쥐, 꼬리가 잘린 도마뱀, 노래를 가르쳐 준 새들, 귀가 까만 산토끼에게 차례로 편지를 쓴 후 모두가 모여 놀던 전나무 밑에 하나씩 매달아 둔다. 기다리던 봄이 오는 신호와 함께 받은 친구들의 답장. 모두와 함께 설레는 봄을 맞이 한다. 춥고 황량한 계절을 따뜻하게 만들며 봄을 기다리는 히로코가 너무도 사랑스럽다.



이 작품은 시인 가타야마 레이코와 화가 가타야마 켄 부부가 같이 만든 그림책이다. 일본에서는 30여년 전에 출간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그림책의 고전이라 말할 수 있다. 가로로 긴 판형의 표지를 가득 채운 커다란 나무가 한 눈에 들어온다. 그 밑에 빨간 코트를 입은 아이와 성탄 트리 장식 같이 조롱 조롱 매달린 작은 편지들이 있다. 표지 그림으로 제목의 의미를 유추하며 넘기면 나오는 연한 연둣빛 속지. 겨울을 버텨낸 메마른 가지들이 새싹을 틔울 때, 그 찰나에만 볼 수 있는 빛깔이다. 봄을 그리며 기다리는 편지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며 한 장씩 책장을 넘겨간다. 작가들은 직접적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편지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아이가 직접 쓰고 그린 듯 뽀뽀뽀한 글과 그림은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있어 감동적이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석유 곤로 옆에서 발이 닿지 않는 큰 의자에 앉아 열심히 집중하여 편지를 쓰는 히로코. 가을에 같이 주운 듯한 도토리나 호두가 책상에 있고, 그 기억을 고스란히 편지에 담아낸다. 꼬리가 떨어졌던 도마뱀에게는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반창고를 동봉하고, 민들레 들판에 새집을 짓던 토끼들에게도 안부를 전한다. 히로코와 숲을 연결해주는 메신저는 표지에서 보았던 거대한 전나무다. 모두가 같이 모여 놀 때도, 겨울이 되어 다들 만날 수 없을 때도 변함없이 늘 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푸른 전나무. 히로코는 전나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보낸다.



밖은 매서운 겨울이지만 아이의 마음만은 집안의 훈훈한 온기만큼 따사롭다. 분명 그림의 힘이 다. 정말 독자의 옆에 따뜻한 곤로가 켜져 있고, 눈 앞에는 색연필로 알록달록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있는 듯하다. 동그랗게 등을 구부린 채 작은 손으로 히로코가 직접 그리고 오린 우표, 그 위에 지우개 도장으로 찍은 소인, 편지 속 제비꽃 한송이, 도토리 한 알. 이 모두는 겨울을 인내하며 그 뒤에 올,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다.



히로코가 쓴 편지들을 전나무에 달아 두는 장면은 너무도 아름답고 또 압도되는 무언가가 있어 한참 바라보게 된다. 가로로 긴 판형을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겨울에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양면 가득 펼쳐진 전나무. 강인하고 경이로운 생명력을 지닌 자연을 나타내는 나무가 히로코를 향해 두 팔 벌려 포근하게 안아주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나무는 말이 없지만 겨우 내 히로코의 편지가 바람에 날아가거나 눈에 젖어 찢어지지 않게 지켜준다. 봄 바람이 불던 어느 날, 현관에 놓인 열매와 꽃들을 보고 히로코는 친구들이 보내온 답장임을 알아차린다. 제비꽃이 한가득 피어난 숲에서 친구들이 히로코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들 편지 고맙워요. 봄이 왔네요!”

지난한 기다림을 묵묵히 아주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끝까지 견뎌낸 아이를 꼭 끌어안아주고 싶다.



KOREA 360 설날주간 풍성한 민속문화 선보여

문화원-콘텐츠진흥원 설날행사 공동 주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용운)과 한국 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센터장 김영수)는 2월 6일(화)부터 2월 12일(월)까지 해외홍보관 KOREA 360에서 ‘2024년 설날주간’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카르타, 땅그랑, 보고르 등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주재국민이 대거 참석하여 한국 설날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체험 등을 통해 설날의 의미를 담아냈다.

행사 첫날에는 한국어 과목을 채택한 땅으랑 소재 푸장가 실업학교(SMK Pujangga) 학생 40명은 명절동요 ‘설날(윤극영 작사.작곡)’을 2절까지 합창하였고, 부채춤 공연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참가자 대상 한글 캘리그래피 새해 덕담과 소망쓰기 시연과 1일 체험 수업 및 복조리 만들기 와 대형 윷놀이 및 제기차기 등 5종 민속놀이 릴레이 대회 외에도 한국 고유의 복식 한복 체험 등을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한편 KOREA 360 이팅존(Eating Zone)에서는 설날 음식문화 체험도 한몫하여 떡국 떡 썰기, 육수에 떡을 넣고 직접 떡국 조리해보기 등 체험과 시식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방문객 대상 떡국 나눔 행사도 진행했다. (제공: 한국문화원)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과의 특별인터뷰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의 허브
《한인니문화연구원》을 성장시킨 주역’

“수상의 영광에 앞서 《한인니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의 허브 센터로 높이 평가를 받는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생업과 교육의 장소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서 함께 이해하고, 향유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한인들, 그리고 한인회와 재능 있는 연구원 가족들 덕분에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은 겸손한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750만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기 위해 2007년부터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선정해 정부 포상을 실시해오고 있다. 재외동포를 대표하는 인물을 선정하는 자리인 만큼 심사과정은 해마다 더 촘촘해진다. 특히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부포상에서 쾌거를 거둬 이번 수상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인뉴스는 사공경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상 배경과 그간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이상덕대사로부터 전달받은 국무총리 표창장

Q.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자 국무총리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문화예술의 길’을 홀로 개척하다시피 하셨기에 수상의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정부에서 수여하는 포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저보다는 연구원에 주어진 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어느 날 인도네시아 문화예술에 반해버렸습니다. 다양한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문화였으니까요. 낯설음이 주는 열정으로 무작정 집을 나와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로부터 30여년입니다. 아름답기만 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롭고 구부러진 길이 더 많았습니다. 허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혜는 부족했고 열정만 앞섰지만 어설픈 사명감과 책임감은 저를 놓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보였으니까요. 연구원이 내 아까운 청춘을 빼앗아 갔다고 느낄 때도 있었답니다. 주저 앓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손을 잡아 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수상을 하고 보니 운명이 얼마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지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 더 의미 있는 행보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의 50년보다 앞으로 더 긴밀해질 양국의 관계를 위해서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한 단계 심화된 교류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더 설레게 됩니다. 저는 이리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영영 길에서 헤매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웃음). 계속 길을 만들며 걸어가겠습니다.

Q. 어떤 면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셨다고 보시는지요?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오는 한인들도 다들 큰 꿈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나 생업에 쫓기다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마음을 단고 지내게 되죠. 문화예술이 밥이 되지는 못하니까요. 우리 한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에도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 놓게 하는 나무 켜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수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보통 해외 동포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날개의 삶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간다는 공동의 역사를 축적해 간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수상의 영광은 저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한 회 한 회 참석했던 모든 이들의 추억과 시간, 경험에 대한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부터 문화탐방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339회를 기록했습니다. 문화탐방 이외에 12회의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및 시상식 개최, 86회의 열린강좌 운영, 세미나, 전시회 기획 및 주관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함께하신 분들이 약 50,000 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한-인니 50년 역사에서 인도네시아에 한국을 알리고, 한국인으로서 인도네시아를 깊이있게 이해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기에 이러한 영광된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는 한국, 내 모국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Q. 한인문화연구원 원장으로서 인도네시아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인가요? 가장 많이 받아본 질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뭐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한,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굳이 한마디로 정의를 해야 한다면 ‘다양성’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TV에 나오는 일기예보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걸쳐 비가 오겠다고……. 중국이나 미국처럼 큰 나라 전체가 비가 온다니. 그들에게는 노아의 홍수가 올 것이라는 예보나 같은 것이겠죠.

얼룩말을 보고 흑인은 검은 바탕에 흰 줄이 있다고 하고, 백인은 흰 바탕에 검은 줄이 있다고 한답니다. 다른 말인가요? 얼룩이 진 말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은 같죠.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많은 종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다양성이 있는 나라이고, 인도네시아인들은 우리와는 얼굴 생김이 조금 다르지만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죠. 그 보편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첫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문화탐방을 사회화하면서 교민사회에 대한 첫사랑, 인도네시아에 대한 첫사랑을 실현하면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탐방을 영상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텍스트 정보를 읽지 않은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직접 연구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문하실 수 있도록 연구원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문학상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정마련을 통해 문학상 및 시상식을 거행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인도네시아 최고의 도자기 작가 위디안토
(F. Widayanto), 한인니문화연구원 방문

세 번째로는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정회원(회비 납부 회원)을 늘리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인 팀원들을 모집하여 국제교류팀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를 깊이 있게 아는 것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문화강국인 인도네시아의 저력을 한국사회에 알리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최고의 발전단계를 구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식은 그리 활발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문화와 동북아의 한국이 문화의 각각의 고유성들이 깊이 있게 소통된다는 것은 그 문화적 토양의 다양성을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에 인도네시아를 알리는 일들을 다양한 채널과 기회를 통해서 수행하고 싶습니다. 작년 한-인니 50주년으로 한국사회가 인니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그에 대응하여 좋은 통로로서 연구원이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자들과의 결속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인 여러분들이 자주 찾고 싶은 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려 오시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경제활동입니다. 그 경제활동이 더 원활하게 성과있게 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정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을 통한 상거래 관행을 자연스럽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사업가는 세상을 한 발 앞서고, 시인은 세상을 두 발 앞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시인의 통찰력, 예술의 상상력이 때론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교민들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교류하지 않고 ‘한국인 섬’ 속에 갇혀 지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인도네시아 거주한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인니문화예술 인프라는 한국의 인프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방대한 나라에 살면서 우리 교민들이 애써 이런 부족함을 메꾸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어느 시인에게 “당신은 언제부터 시인이 되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당신은 언제부터 시인이기를 그만두었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의 본성을 잃지 않는 것도 경제활동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연구원의 활동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알아가면서 인도네시아와 친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바다 위에 길게 펼쳐 있는 넓기만한 섬나라가 아니라 밀림의 중심부처럼 아주 깊은 나라입니다.





꽃길

당신, 따라온 길
꽃길이었네

마치, 내가 당신을 모를 때
피어있던 꽃
처럼

이미지: 산수유 by 정래
글: 김주명



자카르타 한인의 공간, 콤플렉스와 쇼핑몰 그리고 코리아센터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들은 어떤 집에 살까? 한국인들이 만나는 곳은 어디일까? 한국인들의 역사성이 담긴 공간은? 주택단지와 아파트, 쇼핑몰, 코리아센터, 교회와 성당과 절, 한국슈퍼 등이 한국인들의 주된 공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에 산다면 가까운 거리에 공원과 산이 있어서 산책을 할 수가 있지만 자카르타에서는 좀 어렵다. 자카르타에서 경험한 공간과 앞으로 생겼으면 하는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도네시아 주택단지와 아파트: 차단기와 담장으로 누리는 안전

자카르타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단지에 설치된 차단기와 담장은 1990년대 말에 인도네시아에 와서 본 낯선 풍경 중 하나였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단지마다 입구에 차단기와 경비원들 그리고 단지 주변에 담장을 둘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했다. 심지어 단지 입구에서 한 번, 다시 작은 단지로 들어갈 때 한 번 이렇게 차단기를 두세 번 거치는 경우도 있었다. 요즘 인도네시아에 확산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은 외부인에 대한 통제가 더 강하다.

위기가 발생하면 외부인의 출입을 더욱 제한한다. 1998년 5월사태 전후로는 동네 골목길도 주민들끼리 차단기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아예 설계부터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된 주택단지는 더욱 통제가 더욱 심해졌다. 폭은 좁지만 사유지가 아닌 공용 도로와 골목길조차 외부인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 점은 내 입장에서 낯설었다. 인도네시아 정치와 치안이 안정되면서 주택가와 주택단지 통행이 완화됐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시 한번 통제가 강화됐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주택단지와 아파트의 출입 관리 시스템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또 물리적으로 외부로부터 분리된 공간이 되면서, 입주민들에게 영역성을 제공한다. 반면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통행제한과 주변지역 단절 등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는 공간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주변을 담장으로 두르고 차단기를 설치해서 출입을 제한한 주택단지를 콤플렉스(영어 Complex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라 부른다. 우리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주거공간은 콘도미니엄이라 부른다.

이렇게 외부와 구별되는 공간과 그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를 게이트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라고 정의한다. ‘빗장 공동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빗장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낯선 느낌이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게이트드 커뮤니티는 19세기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조성됐다. 현대적인 게이트드 커뮤니티의 시초는 미국의 ‘텍시도 파크’로, 1885년 미국 뉴욕에 직장을 둔 상류층을 겨냥해 근교에 사냥과 낚시 등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급 리조트와 주변 건설된 주택단지로 구성됐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담과 게이트 설치가 용이해지고 경비원을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게 되면서 중산층 주거지만이 아니라 저렴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들도 게이트드 커뮤니티가 됐다.

인도네시아 내 주요 주택단지와 콘도미니엄에는 주거용 건물과 더불어 쇼핑몰과 병원과 학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살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목포대학교 고고인류문화학과와 홍석준 교수는 차단기와 담장이 내부의 주민들과 외부의 비거주자들을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구분하는 가시적 장벽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주자 자신의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차단기와 담장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를 선택하는 이유로 공동체 추구, 안전 추구, 범죄에 대한 두려움, 타인(단지 외부자)에 대한 두려움, 질서정연함과 자산 가치의 보존, 단지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시티워크와 지하 물류 터널

인도네시아에는 쇼핑몰의 이름에 ‘시티워크’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깨끗한 바닥 그리고 2~4층을 터서 시원하게 보이도록 쇼핑몰 공간을 꾸민 곳으로, 공원을 대신해 쾌적하게 걸을 수 있게 했고, 복도 가장자리는 다채로운 컨셉의 식당과 카페 그리고 상점들로 채웠다. 자카르타 스나얀 플라자, 미드 플라자, 아시타몰 등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에는 여러 건물의 지하를 연결해서 지하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상가를 만든 곳도 있다.





Jl. Senopati

자카르타의 토지가 제한적이고 땅값이 비싸고 건물이 밀집한 덕분이다. 그럼에도 쇼핑몰은 공원과 거리 등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체하기 어렵다.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는 여러 강의와 저서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소통하면서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앉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카페와 식당은 취향과 가격대 등 기호나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용한다. 자카르타 남부에 위치한 뽀독인다몰은 주변 부촌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소득의 외국인과 인도네시아인들이 주된 방문객이고, 뼈자텐몰은 주변 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소비자가 주된 방문객이다. 상업공간에 내재된 견고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설 수단이 필요한 것. 그는 “서로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모를 때 선입견 없이 만나 사회가 융합될 수 있다”며 “공원처럼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준 교수는 서울에서 도심 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하 물류 터널을 제안했다. 자율주행로봇이 드나들 수 있는 지하 물류터널을 개발해서 화물차 운행 감소에 따라 여유가 생긴 차선을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서울의 통일로로를 지하도로로 만들고 지상을 공원으로 쓰는 공약을 제안한 정치인들도 있다. 자카르타도 이런 방안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높은 담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아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 얼마나 교류하나? 아파트 또는 주택단지 밖에 이웃들과 얼마나 교류하나? 안전을 위해 만든 게이트드 커뮤니티는 안전할까? 유럽과 미국의 연구자들은 고급 주택단지가 위치한 주변 이웃 마을과의 단절과 주택단지 내 거주자 간의 단절로 인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게이트드 커뮤니티의 폐쇄성으로 인해 담장 안에서 범죄가 증가하기도 한다고 했다.

연구자들은 주택단지의 담장이나 아파트의 보안검색대보다 이웃 간의 교류와 거주자들 간의 친밀한 공동체를 통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98년 5월사태 때 평소에 현지인 이웃에게 잘한 사람은 이웃들이 폭도의 공격을 막아준 반면 현지 이웃이나 고용인에게 못되게 군 사람은 피해를 입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사람이 여럿이다.

인도네시아 한인들, 1인 가구 증가와 소통 기회 감소

자카르타에서 자연을 누리고 사람을 만날 공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트렌드로 1인 가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산책하고 다른 이들과 만날 공간이 적고, 예전과 달리 오프라인 모임도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물가가 오르고 작은 카페와 식당이 문을 닫고 새로 생기는 식당과 카페는 고급화됨에 따라 개인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원격근무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는 일도 줄었다. 온라인에서 만나서 업무를 논의하지만, 예전처럼 한 사무실에서 함께 보내고 식사하면서 쌓을 수 있는 유대감을 갖기 어렵다. 그럼에도 유현준 교수는 화상통화가 된다고 손잡는 데이트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프라인 공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코리아센터와 한인회관

자카르타에는 한인과 관련된 공간으로 한인회가 입주해 있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영사동과 한국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코리아센터가 있다. 코리아센터에는 80~90년대에 설립된 회사들이 아직 있고, 이들의 사무실에는 설립 당시의 풍경이 남아있다.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과 한국학교도 있다. 하지만 종교시설은 포교가 목적이어서 종교가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부담스럽고, 한국학교는 시내에서 멀리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한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인회관은 다양한 한인들이 만나서 화합하는 소셜믹스를 이루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코리아센터는 개인 소유이고 영사동도 한국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서, 현재 자리보다는 다른 장소에 한인회관이 세워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코리아센터는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재건축할 수 있을까? 현재 코리아센터 건물과 주차장을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시설은 지하로 옮기면 어떨까? 새로 생길 한인회관이 인도네시아에서 파편

화된 개인으로 사는 한국인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소이자 한국인의 역사성이 보존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 유현준 교수는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로 바뀌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0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끝]



코리아센터

탈탄! 이렇게 짭컌 함께하는거야~



강아지 이름 : 탈탄 / 나이 : 15살 / 견종: 시츄

특징: 강아지보다 사람을 더 좋아함. 아기때부터 말썽은 NO! 매우 조용하고 안전한 성격. 애착인형 있음. 조용하고 차분하게 집사의 티타임과 책 읽는 시간을 함께하며 우아하게 조는 것을 좋아함.

집사 프로필 : 이름 -황희연

사랑스러운 강아지 탈탄과 14년째 함께 살고 있는, 아이(탈탄)와의 기싸움에서 늘 지고마는 카리스마 제로의 집사입니다.





Dear My Dog...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을 가장 사랑한다. 무조건의 신뢰를 담은 격렬한 꼬리 흔들기로 최고의 환대를 보내주는 나의 강아지와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덧 15살의 노견이 된 나의 강아지는 이제 긴 산책은 많이 힘들어 하고, 강아지 친구들이 많은 곳에 가면 쉽게 피로해 한다. 격렬한 껴안기보다는 조용한 포옹을 좋아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조용히 지켜봐주기를 바라며 나의 곁은 맴도는 아이. 나의 강아지와 함께 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늘 넘치는 애정과 신뢰를 아끼지 않은 쪽은 내 강아지이고, 인간의 시간과 강아지의 시간은 달라서 요즘의 나는 종종 초조하고 슬퍼져서 내 강아지가 나에게 준 사랑을 다 갚지 못할 것에 마음이 아파지곤 한다. 나의 선후배 염려나 초조함과는 달리 세월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에 초연하고 담담한 나의 강아지. 요즘의 나는 그저 나의 강아지와 조금 더 오래 견강한 모습으로 내 곁에 머물러주기를 바란다. 언제까지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좀 더 오래길... 그리고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환대의 꼬리 흔들기를 멈추지 않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개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해!” 이다.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3)

3. 발전기(1988~2002년): 노태우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1) 협력의 에너지 확대와 성과의 축적

이 시기에는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동력이 만들어졌으며,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하였다. 정상외교 측면에서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압두라흐만 와히드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의 방한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전에 비해 정상 간 상호방문이 활발해졌고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1987년 이후 한국 내 민주화와 노조운동 격화, 급격한 임금 상승에 따라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었고, 인도네시아가 주요 투자대상지로 부상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 관련 협정들이 체결되었고, 양국 항공사의 취항도 이루어졌다.

2) 노태우 대통령 공식 방문: 협력 관계 발전의 또 하나의 계기 제공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11월 8일부터 닷새 동안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했다. 노 대통령과 수하르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서부수마트라 주도 빠당(Padang) 시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한국 정부가 유상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9~1993년)에 한국의 자본 기술이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투자보장협정의 조기 타결 및 자원 공동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의 방문은 당초 8월로 추진되었으나 서울올림픽 일정으로 연기됐다. 방문 기간 중 양국 정상이 골프를 치면서 정상회담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나누었고, 수하르트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989년은 한국이 동남아 외교에 있어서 전기가 마련된 해이다. 북미 및 유럽의 지역 경제공동체가 배타적 경향을 보이자, 아태지역의 국가들도 무역 자유화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1월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즉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각료회의가 창설되었고, 1993년부터는 정상회의로 발전한다.

1989년 11월 2일 최호중 외무장관이 아세안사무국에서 알리 알라타스(Ali Alat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당시 아세안 상임위원장)과 한-아세안 협의체 출범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은 통상·투자·관광 부문의 대화상대국으로 지정되었고, 2년 후인 1991년에 완전 대화상대국으로 격상되었다.

노태우 대통령과 수하르트 대통령은 1992년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다시 만났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3)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협력 모멘텀 형성:

KOICA 제1호 해외사무소 개소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은 양국 간 신뢰관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로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한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1987년 6월) 이후 제1호 유상원조 사업이 인도네시아 빠당(Padang)시 우회도로 건설사업(1987년 12월)으로 시작된다. 이어 1992년 9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제1호 해외사무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개설됨으로써 무상원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KOICA 사무소는 한국 초청연수, 프로젝트, 개발조사, 해외봉사단파견, 해외긴급구호, NGO 협력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 전역에는 코이카가 파견한 한국어, 컴퓨터, 미용, 태권도, 유아교육, 지역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봉사단(Korea Overseas Volunteers)이라는 명칭으로 파견을 시작한 한국의 해외봉사단은 2010년 이후 세계의 친구(World Friends Korea)로 이름을 바꾸어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우정을 나누고 있다.

4)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김영삼 대통령은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1994년 11월, 보고르) 참석 직전에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해 수하르토 대

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 해결 관련 협조,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제네바합의로 해결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북한의 합의사항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도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산 LNG 수입과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가격 합리화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개최 하루 전에는 양국 과학기술 담당장관 간 원자력협력의향서 서명이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귀국 후 11월 23일 수하르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성과와 수하르토 대통령의 APEC 의장 역할을 평가하고 인도네시아의 LNG 가스 공급에 대해 재확인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추진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입각해 새로운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고위급 교환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 11월 27일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이던 김대중 대통령과 압둘라흐만 와히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티모르 독립을 승인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이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와히드 대통령은 동티모르와는 달리 아제는 역사와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 영토의 일부라고 언급하면서 독립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에 대해 인도네시아 동포들은 한국 언론에 반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1994년 11월 김영삼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이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환담을 했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한국 정부는 동티모르 파병이 유엔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동티모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5) 와히드 대통령 방한 및 메가와티 대통령의 남북 동시 방문

2000년 2월 와히드 대통령이 방한했는데, 이는 1982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방한 이래 인도네시아 정상의 첫 방한이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동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은 2002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장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다. 메가와티 대통령의 방북은 오래된 북한과의 인연 때문이다. 1965년 김일성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수카르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정일을 함께 만나 바 있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방북 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한했으며, 3월 30일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및 동아시아 등 지역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 의사 전달이 있었다. 또 정보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자원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 한반도 평화에 앞장 선 메가와티

메가와티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대통령의 장녀이다. 1967년 수카르노의 권력을 빼앗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30여년간 철권 통치에 강력히 도전하던 중 1996년 6월 정부와 군부 지원을 받는 민주당(PDI, 투쟁민주당의 전신) 내 반대파에 의해 총재직을 박탈당하며 민주투사라는 이미지를 굳혔다.

메가와티는 1987년에 정치에 입문해 수하르토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으며 혹독한 정치훈련을 거쳤다. 수하르토 퇴진 후 메가와티는 1999



2002년 3월 30일. 김대중 대통령과 메가와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메가와티 대통령은 먼저 북한 방문하고 이어 남한을 방문하며 외교중재자 역할을 했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년부터 2년 동안 인도네시아 부통령 이어 압두라흐만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해 2001~2004년 3년 동안 5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2004년부터 2014년 10년간 야당 당수 이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집권당 총재로서 풍부한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1999년부터 지난 다섯 차례에 걸친 총선에서 대중적인 지지자들은 메가와티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준 만큼 그는 투쟁민주당을 결집하는 핵심인물이다.

포폴리센터(Populi Center) 아디 아비딘 연구원은 메가와티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에 대해, 메가와티와 투쟁민주당이 △헌법 질서의 준수 △세속주의, 좌익, 우익 및 소수자 포용 △전통적인 이슬람과의 협력 등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고 꼽았다.

메가와티는 한반도 평화에 관심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오랜 기간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기꺼이 맡아왔다. 메가와티는 1964년 아버지인 수카르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2002년에는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기도 했다. 또 2011년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는 절친한 사이였다. 메가와티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한과 관련한 내 경험에 도움이 되면 기쁘다고 밝혔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누구보다 기원한다고 말해왔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2015년 ‘명예 제주도민’으로 선정되고, 2017년 목포대에서 명예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한국과 가깝게 지내왔다. (끝)



K-뮤지컬을 영화관에서 즐긴다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10주년 기념 공연 및
엑스칼리버 더 뮤지컬 다큐멘터리 : 도겸의 찬란한 여정-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용운)이 1.25 (목)부터 2.2(금)까지 자카르타와 브카시, 땅그랑, 데폭을 순회하며 개최한 한국 뮤지컬 ‘몬테크리스토’와 ‘엑스칼리버 더 뮤지컬 다큐멘터리 : 도겸의 찬란한 여정’ 상영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새로운 한류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는 매회 만석을 기록했으며, 도겸이 소속된 K-Pop 그룹 ‘세븐틴’ 팬클럽 회원들이 행사를 방문하여 기념품을 나눠주는 등 관객들이 서로 즐기면서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상영회는 관람객 접수 시작 하루 만에 정원의 5배가 넘는 예약이 접수되었으며, 추가 상영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는 등 행사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제공: 한국문화원)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법률, 비상조치령, 정부령, 대통령령, 대통령 지시, 장관령, 청장규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을 받은 적이 없으며,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반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 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면 1차 투표에서 1,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최장 두 임기인 10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한 반역, 비리, 뇌물, 형량이 긴 범죄행위,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의회에 추천하고,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강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에 따라, 예를 들면,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는 주,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트라 육지에는 1). 아체 자치주, 2). 북부 수마트라주, 3). 리아우주, 4). 서부 수마트라주, 5). 잠비주, 6). 병쿨루주, 7). 남부 수마트라주, 8). 람뽕주가 있으며,

6.1.2. 수마트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10). 방카 벌리뽕주가 있으며,

6.1.3. 자바섬에는 11) 반편주, 12). 자카르타 수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4). 중부 자바주, 15). 족자카르타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으며,

6.1.4. 깔리만탄섬에는 17). 서부 깔리만탄주, 18). 중부 깔리만탄주, 19). 남부 깔리만탄주, 20). 동부 깔리만탄주, 21).북부 깔리만탄주가 있으며,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23). 고론팔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7). 동남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땡가라주, 서측은 30). 서부 누사 땡가라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북부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부 빠뿌아주,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회, 군에는 군의회,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졌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행정법원, 종교법원, 군사법원, 상업법원, 노동법원, 부정부패척결법원, 인권법원,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혼, 이혼,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2024 시사상식

1.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은 설립을 앞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국가행정기관으로, 오는 5월 사천시에 개청 예정이다.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 기관을 통해 우주 산업을 키우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청 신설이 추진되었다.

2. 루비키

‘루비키’(ruwiki)는 현재는 러시아어만 제공하고 있는 러시아판 위키피디아로, 지난해 6월부터 베타테스트를 거쳐 현재 약 195만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루비키는 올해 10개 이상의 언어 서비스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서비스 확장 의지를 내비쳤다.

3. 자물쇠 효과

‘자물쇠 효과(lock-in effect)’란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더라도 현재 제품에 대한 투자비용이나 계약, 기회비용이나 귀찮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갈아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고착화 현상으로도 불리는 이 현상은 주로 비싸거나 이전 절차가 복잡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서 잘 발생한다.

4. 슈퍼 선거의 해

슈퍼 선거의 해는 2024년은 세계적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나라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올 한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40억명 이상이 투표를 진행한다. 전 세계 인구수가 약 81억명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치다.

5. 갤럭시 S24

‘갤럭시 S24’는 삼성전자의 Android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리즈인 갤럭시 S 시리즈의 15번째 모델이자, 인공지능(AI) 챗봇 기능이 탑재된 AI 폰이다. 실시간 통화 번역 기능, 텍스트 내용 요약 기능, 사진 편집 AI 기능, 메시지 말투 변환 기능 등 삼성 가우스(Samsung Gauss)와 구글의 Gemini가 적용된 새로운 AI 기능이 다양하게 탑재되었다.

6. K-패스

‘K-패스’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전국 통합형 환승할인카드다.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번 이상 타면 최대 60회 한도로 할인금액을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주는 방식의 교통카드로 다가올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 메르데카118

‘메르데카118’은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높이 679m의 마천루로 2024년 1월 기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828m)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되었다. 이는 지난 2019년 말레이시아의 높이 456m인 건물 ‘더 익스체인지 106’이 아시아 최고층 건축물 타이틀 탈환 이후 4년 만에 다시 한번 동남아 최고층 마천루의 타이틀을 갈아치운 것이다.

[출처: 카드로 보는 시사상식]



00. 보성갯벌의 모습. 자연의 현명한 이용, 국가무형문화재 갯벌어로(꼬막채취)

갯벌과 인류

한반도 오천 년 역사에서 갯벌은 인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삼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한반도는 식량의 수급에 국운이 달려있을 정도로 식량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선조들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했고,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산, 즉 배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부유하지 않은 서민은 다른 식량 수급원을 찾아야 했다. 바로 갯벌이다. 특별히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건강한 육체만 지니고 있다면 식량을 수급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갯벌의 위기

우리나라 갯벌은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고 있고 리아스식 해안 중 만의 입구가 좁아 파랑의 영향이 거의 없는 갯벌의 형태로 주로 발달해 매립이 쉽다는 점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간척사업이 진행됐다. 매립의 역사는 과거 고려시대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식량 확보를 위한 농지와 개발을 위해 수도 없이 갯벌을 매립해 왔다. 지금도 역시 갯벌은 개발을 위한 토지 제공의 일 순위로 여겨지고 있다.



01



02

01,02. 빨배

갯벌의 위기는 간척뿐이 아니다. 수많은 양식업에 따른 오염원 배출, 상상할 수도 없는 양의 해양쓰레기, 무분별한 채취에 따른 자원 사막화 등 자원 채취가 이뤄지면서 생태계 순환 구조가 깨어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법 도구를 사용한 해루질이다. 과거부터 갯벌의 이용은 필요한 만큼만 이뤄졌었다. 이에 갯벌의 온전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갯벌의 현명한 이용이 필요하다.

현명한 갯벌 이용의 대표 사례, 갯벌어로

갯벌어로란 갯벌에서 맨손이나 호미 같은 손 도구를 활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류와 조류, 지질 등 해역에 따라 다양한 어로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또한 갯벌의 종류에 따라 어로 방법과 도구가 달라진다. 대표적인 전통 채취 방법 중 하나는 보성갯벌의 빨배(널배)이다. 보성갯벌의 전통 어로 방법인 빨배는 세립질 퇴적물이 우세한 필갯벌에서 주로 행해지는데 갯벌의 특성과 수산물의 종류에 따른 도구 선택이다. 보성갯벌은 꼬막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면서도 사람이 도보로 걷기 힘든 필갯벌로 빨배 같은 도구가 없는 경우에는 몇 걸음도 채 내딛지 못할 정도로 걷기 힘든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갯벌어로 역사는 서남해안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의 패총부터 시작한다.

패총은 갯벌에서 채취한 조개의 껍데기 군집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조선 후기 문신인 정약전이 저술한 <자산어보>에 갯벌의 패류와 낙지 같은 연체류 등의 채취에 대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부터 이어온 현명한 갯벌 이용은 높은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만큼만 채취하는 과거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갯벌과 공존하는 방식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글, 사진 : 고경남(신안군 세계유산과 과장,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연구팀장)

2024 임원외비 남부명단

기준 : 2024.1.1 ~ 2024.2.27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JAVA PALACE HOTEL	20,000	
2	명예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0	
3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4	부회장	김문수	PT. QUTY KURNIA	5,000	
5	부회장	김창곤	KODECO ENERGY CO LTD	5,000	
6	부회장	박상갑	PT. VIDEX INDONESIA	5,000	
7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8	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5,000	
9	부회장	오인택	PT. BANK IBK INDONESIA TBK	5,000	
10	부회장	이우열	PT. BANK BUKOPIN TBK	5,000	
11	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5,000	
12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13	자문위원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1,000	
14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15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16	자문위원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1,000	
17	자문위원	김주철	PT. STAR CAMTEX	1,000	
18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19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20	자문위원	이종현	PT. LEO KORINSIA	1,000	
21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22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23	이사	강병찬	PT. GLOBAL INDOREKSA ASIA	1,000	
24	이사	강수환	PT. CHAEUM DESIGN	1,000	
25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26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1,000	
27	이사	김영을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28	이사	김형근	PT. GAYA INDAH KHARISMA	1,000	
29	이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000	
30	이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000	
31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32	이사	백상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33	이사	손석기	PT. PERKASA INDAH MAKMUR	1,000	
34	이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35	이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000	
36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37	이사	오동훈	PT. FNS TRANSBUANA	1,000	
38	이사	유용선	PT. DAEHWA INDONESIA	1,000	
39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40	이사	이철훈	PT. INDO BOX UTAMA JAYA	1,000	
41	이사	정상봉	PT. DAESANG INGREDIENTS INDONESIA	1,000	
42	이사	조용재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43	이사	최재희	PT. STONE CANYON INDONESIA	1,000	
44	이사	최제동	PT. CMS CHEMICAL INDONESIA	1,000	
45	이사	최태립	PT. INT. TOTAL SERVICE & LOGISTICS(ITL)	1,000	
46	이사	홍기호	PT. AURORA WORLD CIANJUR	1,000	
47		NO NAME	SPP ANSI YEON YOON	1,000	2023.11.3
48		NO NAME	-	1,000	2024.2.12
49		NO NAME	KAPUK SUPPLIER	1,000	2024.2.13

2024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가나다순

번호	성명	금액(IDR)
1	최석일	300,000
2	NO NAME	300,000
3	채만용	300,000
4	김영경	1,000,000
5	NO NAME	500,000
6	정순	300,000
7	김규리	300,000
8	김경희	300,000
9	사공경	300,000
10	엄강심	300,000
11	김희순	300,000
12	석웅치	3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13	안진호	300,000
14	정사무엘	300,000
15	최혜진	300,000
16	김대근	300,000
17	김창근	300,000
18	김성구	300,000
19	김태원	300,000
20	이상일	300,000
21	최인실	300,000
22	홍석영	300,000
23	이은진	300,000
24	NO NAME	500,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	-----------------------------------	-----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	------------------------	------------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	--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 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 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550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14080
(Toll Jabotabek)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1500669
NTMC(SMSCenter).....9119

열차시간안내.....121
WAKAI 121.....081111 2111 121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88

수도고장 문의 (Palyja Jakarta).....1500223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무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짜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변호사 이웅



법무법인 새강
LAWFIRM SAEGANG

인니 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세무 소송 전문 대한민국 법원 비거주자 판정 다수 승소 경험

변호사 약력

1989 서울대 입학
1997 사법시험 합격 (39회)
2000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2023 현재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파트너)

법무법인 새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4층 (서초동, 케이원빌딩)
T. (한국)+82-10-3051-3670
(인니)+62-857-7577-1114
E. sabub89@hotmail.com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당)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외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당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딤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쫄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독뽕남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홍대포차 726 4999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SMILE KIMBAB
Living World Alam
Sutera, UG floor,
Serpong Utara,
Tangerang Selatan

081292184018



SMILE KIMBAB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골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감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웅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예원	021-7212-0533
찬찬	0812-1060-4848
숙달	0821-4007-7256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홍콩반점	0812-2442-6092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투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레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트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레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가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겔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JASMIN HAIR SALON

Jasmin Hair Salon 1 (한국 미용실)
Darmawangsa Square 1F G46 Jakarta Selatan
영업시간 09:00~19:00 Tlp. 021 7280 0019/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현지 샵)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0225

Jasmin Hair Studio 3 (맛사지, 네일 전문점)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6530
Darmawangsa Square GF (Studio 2 G40, Studio 3 G54)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28051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둥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um@gmail.com T: (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021) 2245 5879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여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프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동

반동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동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동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동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 단&발리

메 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클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	-----------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포교원)	765 6036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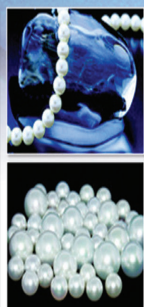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분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옥)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종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웅)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정 상	0815-4650-3667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0-3332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10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1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百年顧客



hotel facilities



Borobudur
Grand Ballroom



Rama
Ballroom I



Shinta
Ballroom II



Meeting Room
I - V



Fitness Club



Driving Range



Garden
Brasserie



Bunker
Cafe



Coffee Shop



Business
Center



Pool Bar



PUB



Swimming
Pool



Restaurant



Sauna & Spa



Money
Changer

Java Palace Hotel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II

Cikarang - Jawa Barat

17530 Indonesia

reservation@palacejava.com

Telp: (62-21) 29281111

Fax: (62-21) 29287300

✉ : info@palace.co.id

Benefit

혜택

고주몽을 포함한 자바팔레스호텔 내 식음료 할인

- 15% 할인 주류 포함

자바팔레스호텔 스파

- 마사지 2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 골프 연습장

- 일반 가격에서 3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 헬스장, 사우나, 스파 시설

- 1년간 무료 이용

자바팔레스호텔 객실

- 무료 숙박권 3매 (주말, Superior

Room, 조식 2인 포함)

- 숙박 50% 할인권 2매 (주말, All

Room type)

- 숙박 20% 할인권 6매 (주중 포함,

All Room type)

Seruni Coffee Shop

- 생일 당일 무료 생일 케이크 제공

(사전 예약 필요)

Annual Fee
IDR. 4,500,000 nett

JOIN NOW

0001

privilege

Richard Chu

Member Since 8/15 Valid